

難經中 疾病條에 關한 研究(I)

- 難經 四十九難을 中心으로 -

宋美令·金容辰·尹暢烈*

I. 緒 論

東洋醫學의 發展은 春秋戰國時代로부터 現在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學問의 基本이 되는 基礎醫學 部分은 最古典인 黃帝內經의 範疇를 넘지 못하고 있다. 黃帝內經에는 東洋醫學의 基本 理論으로부터 疾病의 說明 診斷 治療 養生 針刺 等に 이르기까지 詳細히 記載되어 있으므로 歷代 研究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現在까지도 活潑히 檢討되고 있다¹⁾.

東洋醫學의 基礎理論을 研究함에 있어 難經도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는데, 이는 難經이 黃帝內經 및 中國의 古典 醫學書 中에서 難解한 八十一個의 問題를 뽑아 이것을 問答形式으로 說明하고 있기 때문이다²⁾. 특히 內經에서는 抽象的으로 提示한 命題들을 具體的으로 解釋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學說을 標榜하여 難經 著作 以後의 東洋醫學 發展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例를 들면 脈診 部分에 있어서 內經의 三部 九候를 氣口 部位의 寸·關·尺 三部와 各部를 浮·中·沈 三候로 解釋하여 診脈의 趨勢가 氣口 一處로 集中됨을 表現하였고, 經絡 部分에서는 처음으로 奇經八脈의 說을 提出하여 內經의 缺陷을 補充하였다. 臟腑 部分에서는 左腎爲腎 右腎爲命門說과 腎間動氣의 作用을 強調하여 後世 命門學說의 先端을 열었고 三焦有名而無形의 說을 提出하여 以後 醫家들의 爭論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重要的 內容을 담고 있는 《難經》의 著者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秦越人(扁鵲)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考證上 無名의 東漢人의 所作으로 보여진다³⁾. 그러나 《難經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洪元植 中國醫學史 p.41

2) 成樂箕 八十一難經解釋 p.vi

3) 洪元植 上揭書 p.95

》의 著者는 黃帝內經에 있어서의 黃帝와 같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4).

《難經》의 內容은 크게 脈學(第一~第二十二難), 經絡(第二十三~第二十九難), 臟腑(第三十~第四十七難), 疾病(第四十八~第六十一難), 腧穴(第六十二~第六十八難), 針法(第六十九~第八十一難)으로 나뉘어진다.

《難經》에 對한 歷代 研究는 三國時代 吳代의 呂廣, 唐代의 楊玄操, 宋代의 丁德用·虞庶, 元代의 謝稽孫·滑壽, 明代의 王九思·張世賢, 清代의 徐靈台·葉霖·丁錦 등에 依해 이루어졌으며 最近에는 中國의 各 中醫學院들과 대만의 唐湘清·黃維三, 日本의 勝萬卿·加藤宗博·本間祥白 等도 學文의 發展에 따른 多樣한 註釋을 加하였다. 이들 註釋書의 內容은 大體로 《難經》의 原文을 註解·註釋하여 諸家의 研究를 匯選·補充하고 自己見解를 提出하는 方法과, 《難經》 原文中の 錯簡과 缺漏를 찾거나 篇次를 再整理하여 《難經》 原文의 原貌를 恢復하기 위한 校勘을 試圖하거나5), 《難經發揮》와 같이 《難經》全體 內容을 特徵에 따라 分述하는 方法 등으로 進行되어 왔다6).

이와 같이 歷代 研究는 많았으나 各家들의 見解가 總括되지 못하여 難經의 原義를 理解하기에 不足하고 各 難의 相互 聯關性도 模糊하므로 可能한 모든 註釋書들을 蒐集하여 綜合 考察하고, 各 難 內容의 關聯性도 考察해 볼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特히 第四十八難~第六十一難7)은 臨床에서 重要視되는 疾病의 原因 症狀 診斷 및 傳變의 過程과 몇몇 疾病들에 대해 論述하고 있는데, 臨床醫로써 이 部分에 대한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되어 一次적으로 四十九難에 대한 研究를 하여 斯界에 報告하는 바이다.

4) 成樂箕 上揭書 p.vi

5)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pp.3-4

6) 黃維三 難經發揮 p.1

7) 《譯釋》 <第四十八難>; 三虛三實을 論. <第四十九難>;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을 區別. <第五十難>; 五行理論으로 五邪傳變을 分析. <第五十一難>; 臟腑發病을 喜惡證狀으로 區別하는 것을 論. <第五十二難>; 臟腑病根의 不同을 論. <第五十三難>; 五行生剋規律로 疾病의 傳變과 預後를 論. <第五十四難>; 臟腑病의 治療의 難異를 論. <第五十五難>; 積聚의 證狀과 鑑別. <第五十六難>; 五臟積病을 論. <第五十七難>; 五泄의 證狀과 名稱. <第五十八難>; 廣義의 傷寒을 論. <第五十九難>; 狂病과 癲病의 鑑別을 論. <第六十難>; 頭痛 心痛의 類型을 論. <第六十一難>; 望聞問切 四診을 論.

Ⅱ. 研究方法

本篇의 全般的인 理解를 돕고 內容을 比較 研究하기 위하여 各 難別로 原文에 縣吐를 하고 解釋하였고, 校勘·字句解를 加하였다. 各家注 中 古文은 縣吐하였고 現代文은 解釋하였는데 古文의 註釋內容을 引用한 部分은 省略하였다. 考察은 各家注를 參考하여 하였으며 그에 따른 結果를 結論으로 삼았다.

- 1)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삼았다.
- 2) 縣吐는 傳來의 方式으로 하였다.
- 3) 解釋은 原文의 直譯을 爲主로 하였다.
- 4) 校勘은 各 引用 文獻 中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調查하여 全體的인 文義에 비추어 보아 가장 妥當하다고 思料되는 것을 決定하여 提示하였다.
- 5)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訓을 달았으며 必要한 境遇는 說明을 追加하였다.
- 6) 各家注는 著述된 時代順으로 引用하되 中國의 文獻을 우선 앞에 提示한 후, 日本의 文獻들을 引用하였고 原文이 긴 條項의 境遇 註釋의 內容도 많으므로 몇 部分으로 나누었다. 古文의 境遇는 縣吐하였고, 注文의 글자가 誤字라고 생각되는 境遇는 ()속에 適合하다고 여겨지는 글자를 적었다. 現代文의 境遇는 解釋하였는데 內容이 重複될 境遇에는 省略했다.
- 7) 考察은 各家注의 內容을 土臺로 各 難의 學術的인 內容들에 대해서 總括하여 整理하였다.
- 8) 引用文獻에 대한 內容과 各家에 대한 解說은 脚註로 整理하였다.
- 9)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은 《 》, 校勘은 〈 〉, 字句解는 (), 各家主는 [], 各家는 「 」로 表示하였다.
- 10) 本 論文에 引用될 註釋書는 다음과 같다.

著 者	書 籍	時代 및 나라	備 考
滑 壽	《難經本義》	元	以下 《本義》라고 簡稱한다.
王九思	《難經集注》	明	以下 《集注》라고 簡稱한다.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以下 《圖註》라고 簡稱한다.

著 者	書 籍	時代 및 나라	備 考
徐靈台	《難經經釋》	清	以下 《經釋》이라고 簡稱한다.
葉霖	《難經正義》		以下 《正義》라고 簡稱한다.
丁錦	《古本難經闡註》		以下 《闡註》라고 簡稱한다.
黃元御	《難經懸解》		以下 《懸解》라고 簡稱한다.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中	以下 《匯海》라고 簡稱한다.
凌輝星	《難經校注》		以下 《校註》라고 簡稱한다.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以下 《校釋》이라고 簡稱한다.
上 同	《難經譯釋》	國	以下 《譯釋》이라고 簡稱한다.
王洪圖	《難經》		以下 《難經》이라고 簡稱한다.
唐湘清	《難經今釋》	臺 灣	以下 《今釋》이라고 簡稱한다.
黃維三	《難經發揮》		以下 《發揮》라고 簡稱한다.
滕萬卿	《難經古義》		以下 《古義》라고 簡稱한다.
加藤宗博	《難經衷腋》	日 本	以下 《衷腋》이라고 簡稱한다.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以下 《研究》라고 簡稱한다.

Ⅲ. 本 論

【原文】

四十九難⁽¹⁾曰 有正經⁽¹⁾自病⁽²⁾하며有五邪⁽³⁾所傷하니 何以別之오 然이라 憂愁思慮則傷心⁽²⁾하고 形寒飲冷則傷肺하고 恚怒⁽⁴⁾氣逆⁽³⁾하야 上而不下則傷肝하고 飲食勞倦 則傷脾하고 久坐濕地하며 強力入水⁽⁴⁾⁽⁵⁾則傷腎이라하니 是正經之自病也라.⁽¹⁾ 何謂五邪오 然이라 有中⁽⁶⁾風하며 有傷暑하며 有飲食勞倦⁽⁷⁾하며 有傷寒하며 有中濕하니 此之謂五邪라⁽²⁾. 假令心病을 何以知中風得之오 然이라 其色當赤이라 何以言之오 肝主色하니 自入爲靑이오 入心爲赤이오 入脾爲黃이오 入肺爲白이오 入腎爲黑이니 肝爲心邪⁽⁵⁾라 故知當赤色이라. 其病 身熱하며 脇下滿痛하며 其脈浮大而弦⁽⁶⁾이라⁽³⁾. 何以知傷暑得之오. 然이라 當惡臭⁽⁷⁾라 何以言之오 心主臭하니 自入爲焦⁽⁸⁾臭오 入脾爲香臭오 入肝爲臊⁽⁹⁾臭오 入腎爲腐臭오 入肺爲腥⁽¹⁰⁾

臭니 故知心病을 傷暑得之면 當惡臭⁽⁷⁾라. 其病 身熱而煩 心痛하며 其脈浮大而散이라⁽⁴⁾. 何以知飲食勞倦得之오. 然이라 當喜苦味也라 虛爲不飲食하고 實爲飲食⁽⁸⁾이라. 何以言之오 脾主味하니 入肝爲酸이오 入心爲苦오 入肺爲辛이오 入腎爲鹹이오 自入爲甘이라 故知脾邪入心하면 爲喜苦味也라 其病 身熱而體重 嗜臥하며 四肢不收하고 其脈浮大而緩이라⁽⁵⁾. 何以知傷寒得之오. 然이라 當譫言妄語라. 何以言之오 肺主聲하니 入肝爲呼오 入心爲言이오 入脾爲歌오 入腎爲呻이오 自入爲哭이라 故知肺邪入心하면 爲譫言妄語⁽¹¹⁾也라 其病 身熱하며 洒洒⁽¹²⁾惡寒하며 甚則喘咳하며 其脈浮大而濇⁽⁹⁾이라⁽⁶⁾. 何以知中濕得之오. 然이라 當喜汗出不可止라. 何以言之오 腎主濕⁽¹⁰⁾하니 入肝爲泣이오 入心爲汗이오 入脾爲漑⁽¹¹⁾이오 入肺爲涕오 自入爲唾라 故知腎邪入心하면 爲汗出不可止也라 其病은 身熱而小腹痛하며 足脛寒而逆하며 其脈沈濡而大이라⁽⁷⁾. 此五邪之法也라⁽⁸⁾.

【校勘】

〈1〉《今釋》에는 50難에 記載되어 있는데 그 外의 引用書에는 四十九難에 記載되어 있다.

〈2〉《圖註》《闡註》에는 經字가 없다. 《本義》《經釋》《正義》《懸解》《匯海》《譯釋》《古義》《研究》에는 經言이 없다. 《校釋》에서 《本義》에는 없는데 《集注》에서 補完한다고 했다.

〈3〉《圖註》에는 是怒氣迷로 되어 있다.

〈4〉《闡註》에는 強力入房으로 되어 있다. 《譯釋》의 註에서 強力入水를 強力入房이라고 한 著書도 있는데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 有所用力舉重 若入房過度 汗出溶水 卽傷腎이라 한 것을 參考 한 듯하다고 하였다.

〈5〉《校注》《難經》《古義》《裹腋》《研究》에서는 肝邪入心이라 하였는데 《校注》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原作에는 肝爲心邪라 했는데 뜻이 難解하다. 下文의 脾邪入心 肺邪入心 腎邪入心の 文例를 따라 마땅히 肝邪入心이라 해야 한다. 《針灸大成》卷一에서 難經을 引用할 때도 肝邪入心이라 했으니 여기서는 改正한다.

〈6〉《校注》에는 絃으로 表記되어 있는데 《集韻·先韻》에 絃과 弦은 通한다 하였다.

〈7〉《匯海》《校注》《校釋》《難經》《發揮》《古義》에는 焦臭라 하여 焦字가 들어있다. 《校注》에서, 焦字가 原來는 없는데 上下文을 볼때 焦臭라 해야 한다고 했고, 《古義》에서는 舊本에는 없으므로 補充한다고 하면서 焦臭로 記載했다. 《校注》《古義》의 內容이 옳은 것 같다.

〈8〉《古義》에서 二句를 舊註에서는 或 衍文이라 했지만 뜻에 있어서는 無害하다고 했다.

〈9〉《懸解》《發揮》에 澁으로 되어 있는데 意味上 相通한다 하겠다.

〈10〉《圖註》《闡註》《懸解》《校注》《校釋》《譯釋》《難經》《發揮》《古義》《裹腋》에서는 液으로 表記되어 있다. 《校注》에서 原來 濕으로 잘못 쓰여졌다고 하면서 四十難의 腎主液과 三十四難의 「五臟所主色 臭 味 聲 液」이라 했음을 提示했다. 《校釋》에서는 明本 難經에 依據하여 고쳤다고 했고, 《古義》에서는 舊本에서 濕이라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다.

〈11〉《集注》에 液으로 되어 있는데 丁注에는 涎이라 하였으니 涎이 옳다.

【字句解】

(1) 正經 : 바를正, 길經 ; 《校釋》에서 正經은 十二經脈을 指稱하고 經脈은 內로 臟腑에 屬하므로 經脈이 連結되는 內臟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2) 自病 : 스스로 自, 疾病 病 ; 《校釋》에서 自病은 病邪가 某臟을 損傷하면 그 臟에서 直接 疾病이 發生되는 것으로 他臟에서 傳變되어 온 疾病이 아니라는 意味이다라고 했다.

(3) 五邪 : 다섯 五, 邪氣邪 ; 《校釋》에서 風 寒 暑 濕 飲食勞倦의 五種 致病因素라 했다.

(4) 恚怒 : 성낼 恚, 성낼 怒 ; 《校注》에서 이들은 同義語라 했는데, 《廣雅釋詁二上》의 「恚는 怒也」라 한 것을 引用하였다.

(5) 強力入水 : 《校注》에서 強力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리한 性行爲를 하는 等 힘을 많이 쓰는 것을 意味하고, 入水는 물을 건너면서 비를 맞는 등 물에 흠뻑 젖는 것을 意味한다고 했다.

(6) 《校注》에서 中은 傷과 같다. 《淮南子 原道》高注에 「中은 傷也」라 했고, 《素問·調經論》에 「無中其經이면 無傷其絡이라」하였다고 했다.

(7) 飲食勞倦 : 過食 過勞를 意味한다.

(8) 焦 : 탄내날 焦 ; 불에 타는 냄새를 意味한다.

(9) 臊 : 누릴 조 ; 짐승고기의 누린내.

(10) 腥 : 누릴 성 ; 날고기의 냄새.

(11) 讒言 : 헛소리 섬, 말씀 언 ; 《研究》에서 病中の 어수선한 整理되지 않은 말이라 했다. 妄語 : 허망할 망, 말씀 어 ; 《研究》에서 거짓되고 거칠고 제멋대로 하는 말이라 했다.

(12) 洒洒 : 뿌릴 쇄 ; 물을 뿌리는 듯한 惡寒感을 表現한 말.

【解釋】

四十九難에 이르기를 正經自病이 있고 五邪所傷이 있는데 어떻게 區別합니까. 答이라. 憂愁思慮는 心을 傷하고 形寒飲冷은 肺를 傷하고 恚怒氣가 逆上하여 不

下하면 肝을 傷하고 飲食勞倦은 脾를 傷하고 久坐濕地와 強力入水는 腎을 傷하니 이는 正經自病입니다. 어떤것을 五邪라 합니까. 答이라. 中風과 傷暑와 飲食勞倦과 傷寒과 中濕이 있으니 이를 五邪라 합니다. 假令 心病이 中風으로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答이라. 당연히 그 面色이 赤色으로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肝은 色을 主하니 心으로 入하면 赤色이 되고 脾로 入하면 黃色이 되고 肺로 入하면 白色이 되고 腎으로 入하면 黑色이 됩니다. 肝이 心邪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赤色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病은 身熱하며 脇下滿痛하며 그 脈은 浮大하고 弦합니다. 傷暑로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答이라. 당연히 焦臭를 싫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心은 臭를 主하니 스스로에 入하면 焦臭가 되고 脾에 入하면 香臭가 되고 肝에 入하면 臊臭가 되고 腎에 入하면 腐臭가 되고 肺에 入하면 腥臭가 되므로 心病이 傷暑로 얻어지면 당연히 焦臭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 病은 身熱하고 煩燥하며 心痛이 있고 그 脈은 浮大하고 散합니다. 飲食勞倦으로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答이라. 당연히 苦味를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脾는 味를 主하므로 肝에 入하면 酸이 되고 心에 入하면 苦가 되고 肺에 入하면 辛이 되고 腎에 入하면 鹹이 되고 스스로에 入하면 甘이 되므로 脾邪가 心에 入하면 苦味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 病은 身熱하며 體重하며 嗜臥하며 四肢不收하며 그 脈은 浮大하고 緩합니다. 傷寒으로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答이라. 당연히 讒言 妄語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肺는 聲을 主하니 肝에 入하면 呼가 되고 心에 入하면 言이 되고 脾에 入하면 歌가 되고 腎에 入하면 呻이 되고 스스로에 入하면 哭이 되므로 肺邪가 心에 入하면 讒言 妄語하게 됩니다. 그 病은 身熱하며 洒洒惡寒하며 甚하면 喘咳하고 그 脈은 浮大하고 濇합니다. 中濕으로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答이라. 당연히 汗出이 많고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腎은 液을 主하니 肝에 入하면 泣이 되고 心에 入하면 汗이 되고 脾에 入하면 涎이 되고 肺에 入하면 涕가 되고 스스로에 入하면 唾가 되므로 腎邪가 心에 入하면 涙이 흐르고 그치지 않습니다. 그 病은 身熱하며 小腹痛하며 足脛이 寒逆하며 그 脈은 沈濡하고 大합니다. 이것이 五邪의 法입니다.

【各家注】

1) 本義

① 心主思慮라 君主之官也라 故로憂愁思慮即傷心이라. 肺主皮毛而上이니 是爲嫩(嬌)臧 故形寒飲冷即傷肺라. 肝主怒하니 怒即傷肝이라. 脾主飲食及四肢 故飲食勞倦即傷脾라. 腎主骨而屬水라 故用力作强하며 坐濕入水即傷腎이라. 凡此皆憂

思患怒와 飲食動作之過 而致然也라. 夫憂思患怒와 飲食動作은 人之所不能無者니 發而中節이면 烏能爲害리오 過卽傷人必矣라 故善養生者는 去泰去甚하고 適其中而已라. 昧者拘言하야 乃欲一切拒絕之니 豈理也哉也리오. 此與靈樞第四篇文으로 大同小異라 但傷脾一節은 作若醉入房 汗出當風 卽傷脾不同爾라. 謝氏曰 飲食勞倦은 自是二事니 飲食得者는 飢飽失時오 勞倦者는 勞形力而致倦怠也라. 此本經自病者는 病有內作이오 非外邪之間이니 所爲內傷者也라. 或曰 坐濕入水도 亦從外得之也어늘 何爲正經自病고? 曰 此非天之六淫也라.

② 風은 木也니 喜傷肝이오 暑는 火니 喜傷心이오 土爰稼穡하고 脾主四肢라 故飲食勞倦은 喜傷脾오 寒은 金氣也니 喜傷肺라 左氏傳에 狐突云金寒이 是也라 濕은 水也니 喜傷腎이니 霧雨蒸氣之類也라 此五者는 邪由外至니 所謂外傷者也라. 謝氏曰 脾胃正經之病은 得之勞倦이오 五邪之傷은 得之飲食이라.

③ 此以心經一部로 設假令而發其例也라. 肝主色하고 肝爲心邪라 故色赤身熱이라 脈浮大는 心也오 脇痛脈弦은 肝也라.

④ 心主臭하고 心傷暑而自病이라 故惡臭而證狀脈診이 皆屬于心也라.

⑤ 脾主味하고 脾爲心邪라 故喜苦味라 身熱脈浮大는 心也오 體重嗜臥하며 四肢不收 脈緩은 脾也라. 虛爲不欲食 實爲欲食二句는 於上下文에 無所發이니 疑錯簡衍文也라.

⑥ 肺主聲하고 肺爲心邪라 故譫言妄語라 身熱脈浮大는 心也오 惡寒喘咳하며 脈濇은 肺也라.

⑦ 腎主濕하고 濕化五液하며 腎爲心邪라 故汗出不可止라 身熱脈大는 心也오 小腹痛하며 足脛寒하며 脈沈濡는 腎也라.

⑧ 凡陰陽府臧經絡之氣가 虛實相等은 正也오 偏虛偏實은 失其正也라 失其正卽 爲邪矣라. 此篇은 越人이 蓋言陰陽臧府經絡之偏虛偏實者也라. 由偏實也라 故內邪得而生이오 由偏虛也라 故外邪得而入이라.

2) 集註

① 丁曰 心主脈이라 憂愁思慮 卽心脈不得宣行이라 故傷心也라. 呂曰 心爲神이오 五臟之君이니 聰明才智가 皆由心出이라 憂勞之甚卽傷其心하야 心傷神弱也라. 虞曰 任治於物 清淨栖靈曰 心이어늘 今憂愁思慮不息이라 故傷心也라. 丁曰 肺主皮毛니 惡其寒하니 所以形寒飲寒卽令傷其肺也라. 呂曰 肺主皮毛하니 形寒者는 皮毛寒也오 飲冷者는 傷肺也라 肺主受水漿 水漿不可冷飲이라 肺又惡寒이라 故曰傷也라. 丁曰 肝主謀慮하고 膽主勇斷이라 故怒極卽傷其肝也라. 呂曰 肝與膽이 爲臧府오 其氣勇이라 故主怒오 怒卽傷也라. 虞曰 素問에 云 怒卽血鬱하여 積於上焦하면 名曰 逆厥이라 又曰 怒卽嘔血은 氣逆使然이라 故傷也라. 丁曰 脾主味

니 飲食味美而過食之하고 無道勞動하면 其力倦局其足 故傷脾也라. 呂曰 飲食飽하면 胃氣滿하고 脾絡恆急이라 或走馬跳躍하고 或以房勞하면 脈絡裂이라 故傷脾也라. 虞曰 脾爲倉廩之官이오 五味出焉이라하니 謂納其五味하여 化生五氣하여 以養人身이어늘 今飲食勞倦而致自傷이라 是故로 聖人은 謹和五味하여 骨正筋柔하고 謹道如法하여 長有天命하니 安致自傷이리오 養生之道를 可不戒哉라. 丁曰 腎主腰하고 腰者는 腎之府라 久坐即腎氣不得宣行이라 故損也라. 腎穴在足心底를 名曰涌泉이니 居處濕地入水라 故有損也라 強力者는 務快其心 強合陰陽 故傷其腎也라. 呂曰 久坐濕地는 謂遭憂喪이오 強力者는 謂舉重引弩오 入水者는 謂復溺於水라 或婦人經水未過한데 強合陰陽也라. 虞曰 土主濕은 自然之理也어늘 今久坐濕地는 即外濕內感於腎合之니 風寒發爲臟病이라 強力過用하면 必致自飲也라 經脈別論에 曰 持重遠行이면 必傷於腎이라하고 生氣通天論에 曰 因而強力하면 腎氣乃傷하고 高骨乃壞라 經脈別論에 曰 度水跌仆하면 喘出於腎與胃也라하니라. 丁曰 此五者는 皆正經自病이오 非謂他邪也라. 呂曰 此皆從其臧內自發病이니 不從外來也라. 虞曰 呂氏言 其臧內自發 其病不從外來라하니 其義非也라 只如形寒飲冷하여 傷肺者는 謂外寒感於皮毛하여 內合於肺 此從外來也라 又飲冷入口하여 內傷於肺도 亦從外來也니 餘悉如此라 聖人大意는 言正經虛即腠理開하고 腠理開即外感於內라 故曰 正經自病也라.

② 丁曰 中者는 傷也니 言中風者는 謂肝應風主色이니 邪散於五臟이면 爲之五色也라 呂曰 肝主風也라. 虞曰 東方生風하고 風生木惡風하고 又巽木爲風이라. 丁曰 傷暑者는 謂心應暑主臭니 邪散於五臟이면 爲之五臭也라. 呂曰 心主暑也라. 虞曰 心火主暑니 王於夏暑熱也라 素問에 曰 夏傷於暑하면 秋必痲瘡이라. 丁曰 脾應濕主味하니 邪散入五臟爲五味라. 呂曰 脾主勞倦也라. 虞曰 正經自病에 亦言飲食勞倦傷脾어늘 今五邪에 亦言飲食勞倦하니 正經病은 謂正經虛又傷飲食이오 五邪病은 謂飲食傷於脾而致病也라. 丁曰 肺主燥而其令清切惡寒하고 主其聲하니 邪散入五臟하면 爲之五聲也라. 呂曰 肺主寒也라. 虞曰 謂寒感皮毛라 故曰傷寒也라. 丁曰 腎應寒主水하니 邪散入五臟하면 爲之五液也라. 呂曰 腎主濕也라. 虞曰 水流濕之義也라. 呂曰 此五病은 從外來也라. 虞曰 此五行相勝也니 作邪如下說也라.

③ 虞曰 巽爲風屬木이라 故主中風이라 木之華萼은 數布五色하니 作五邪乃如下說也라. 本經自病也라. 肝邪入心하면 其色乃赤하고 肝邪入脾하면 其色乃黃하고 肝邪入肺 故로其色白하고 肝邪在腎하면 其色黑이라. 呂曰 肝主中風하고 心主傷暑者어늘 今心病中風이라 故肝邪往傷心也라. 身熱者 心(脇下)滿痛者는 肝二臧之病證也라. 虞曰 心主傷暑니 病即身熱하고 肝布兩脇 故脇滿이니 肝之乘心也라. 呂曰 浮大者心이오 弦者肝이니 二臧脈見應也라.

④ 虞曰 心은 火也니 火之化物이면 五臭出焉이라. 火性炎上 卽生焦臭니 此曰 正經自病也오 火之化土면 其臭乃香하고 火之化木이면 其臭乃臊하고 火之化水면 其臭乃腐하고 火之化金이면 其臭乃腥이라. 呂曰 心主暑하니 今傷暑는 此正經自病 이오 不中他邪라.

⑤ 虞曰 稼穡作甘禮云 甘受和라하니 故主味也라. 脾主味하니 爲邪乘肝病者 는 乃喜酸味也라. 脾主味하니 爲邪干心病者는 乃喜苦味也라. 脾主味하니 爲邪干 肺病者는 乃喜辛味也라. 脾主味하니 爲邪干腎病者는 乃喜鹹味也라. 土爲稼穡이니 本經自病이면 乃喜甘味也라. 呂曰 心主傷熱이오 脾主勞倦이어늘 今心病을 以飲食 勞倦得之라 故知脾邪入心也라. 身熱者 心也오 體重者 脾也니 此二臧病證也라. 浮 大者 心脈이오 緩者 脾脈이라.

⑥ 虞曰 五金擊之면 有聲이라 故五音은 出於肺也라. 木之畏金 故호呼라 啓 玄子云 呼亦當嘯라. 此云言은 素問云笑니 謂金火相當하고 夫婦相見 故호言笑라. 土母金子니 母子相見이라 故有歌義라. 金母水子니 子之見母면 發嬌呻聲也라. 肺 主於秋오 秋者는 愁也오 其音商이라 商傷也라 故自入爲哭也라. 呂曰 心主暑하고 肺主寒이니 得之故知肺邪入心 以爲病也라. 身熱者心이오 惡寒者肺니 此二臧病證 也라. 浮大者는 心脈이오 濇者는 肺脈也라.

⑦ 丁曰 腎主水하고 水化五液也라. 虞曰 腎主水하고 水流濕이라 故五濕은 皆出於腎이라. 悲哀動中卽傷魂하고 魂傷卽感而淚下라 爲肺主悲오 悲卽金有餘니 木乃畏之라 水者木之母라 母憂子 故호 肝爲泣也라. 水火交泰하야 蒸之爲汗이라. 土夫水妻니 妻從夫卽生涎也라. 北方生寒하고 寒生腎어늘 今寒感皮毛하여 內合於 肺니 肺寒卽涕라 是知入肺爲涕라. 腎之脈은 上絡於舌 故生唾也라 離中六二爻 是 也라 此卽正經自病이라. 呂曰 心主暑오 腎主濕이어늘 今心病을 以傷濕得之라 故 知腎邪入心也라. 身熱者心이오 小腹痛者腎이니 腎邪干心하여 此二臧病證也라. 大 者心脈이오 沈濡者腎脈也라

3) 圖註

① 心은 藏神養心하니 莫善于寡慾憂愁思慮오 過度卽神疲而心受傷矣라. 肺主 氣而宜溫이니 形寒者는 皮毛寒也오 形寒于外而飲冷于內면 卽氣不利而肺受傷矣라. 肝主怒오 恚는 恨怒也니 恚怒卽氣逆而上하야 血不順行하여 壅積心胃而爲歸養肝이 오 甚卽嘔血而肝受傷矣라. 脾受穀味而主四肢니 善養脾者는 調其飲食하고 弗勞其 形하나니 或苟飲食不節하고 起居無常하면 脾受傷矣라. 腎惡濕이니 內經에曰 濕勝 寒하고 季夏腎衰라하니 濕能勝腎을 可知라. 腰乃腎之府니 坐濕卽濕易入이라 強力 者는 力不勝能而強勝之也니 強力卽汗出이오 汗出卽玄府不固어늘 入于水中하면 水從玄府而入이니 濕勝卽腎傷矣라 此五者는 是正經自生病也라.

② 五邪는 乃他邪所傷이오 非正經自病이라. 肝屬木 主色而應風하니 邪入五臟하면 爲五色이오 心屬火 主臭而惡暑니 邪入五臟하면 爲五臭오 脾屬土主味며 欲有節이니 邪入五臟하면 爲五味오 肺屬金主聲而惡寒이니 邪入五臟하면 爲五音이오 腎屬水主液而惡濕이니 邪入五臟하면 爲五液이니 五邪各從其類라. 或曰 正經自病에 旣言 飲食勞倦하니 五邪之病에 不宜言 飲食勞倦하노이다 然이라 正經自病의 飲食勞倦은 謂正傷脾오 五邪爲病에 謂飲食勞倦은 傷脾而病傳各臟이라. 中濕亦如之라.

③ 此는 言心病이 因中風而得이라 中風之病은 肝先得하고 色乃肝所主라. 肝邪入心하면 其色乃赤色하니 青(色)屬肝 赤屬心이라. 身熱者 心病이오 脇下痛者 肝病이오 浮大者는 心脈也오 弦者 肝木也라 肝邪于心 故로色脈與病하고 肝心二經病見也라.

④ 此는 言心病이 因傷暑而得也라 傷暑之病은 心先得이라 心은 火也니 火化物하면 五臭出焉이라 臭乃心所主니 心火炎甚卽心焦苦라 苦(臭)屬心하고 焦亦心也니 心邪自于心 故로臭脈與病하고 獨見心經이라.

⑤ 此는 言心病이 因飲食勞倦而得也라 飲食勞倦之病은 脾先得이라 脾虛卽不欲食하고 實卽欲食이라 味乃脾所主니 脾邪入心하면 飲食喜苦라 味屬脾오 苦屬心也라 身熱者는 心病也오 體重嗜臥四肢不收者 脾病也오 浮大者心脈也오 緩者는 脾脈也니 脾邪于心 故로榮脈與病하고 脾心二經病見也라.

⑥ 此는 言心病이 因傷寒而得也라 傷寒之病은 肺先得이라 聲乃肺所主니 肺邪入心이면 其聲爲言이니 聲屬肺요 言屬心也라 身熱者心病也요 洒洒惡寒甚卽喘欬者는 肺病也오 浮大者 心脈也오 濇者 肺脈也니 肺邪于心 故로聲脈與病하고 肺心二經病見이라.

⑦ 此는 言心病이 因中濕而得也라 中濕之病은 腎先得이라 乃腎所主라 腎邪入心하면 汗出不可止니 不可止者는 苟能止也라 濕屬腎하고 汗屬心也라 身熱者는 心病也오 小腹足脛寒而逆者는 腎病也오 沈濡者 腎脈也오 大者 心脈也라 腎邪入心 故로液脈與病하고 心腎二經病見이라.

⑧ 結上文이라 經文에 雖曰 假令心病하고 不及備言이나 各臟은 其大略已陳俱하니 可類推矣라 潔古⁸⁾復備言 各臟하야 續增二十條于經文之末이나 憑卽誠恐有雜聖經이라 故入于註內하노라. 潔古曰 假令脾病은 何以知中風得之오 其病色黃이라 何以言之오 肝主色이니 自入爲青이오 入心爲赤이오 入脾爲黃이오 入肺爲白이오 入腎爲黑이라. 故知肝爲脾邪라 其病體重脇下滿痛하며 其脈緩而弦이라. 假令肺病은 何以知中風得之오 其色白이라 肝爲肺邪면 其病洒淅惡熱脇下痛하며 其脈濇而弦이라 何以知之오 肝主色이니 入肺爲白이라. 假令腎病은 何以知中風得之오 其

8) 張元素 : 號. 潔古, 金明昌大定間易水人 藥註難經著.

色黑이라 肝爲腎邪면 其病瀉與下重하고 脇下痛하며 其脈沈濇而弦이라 何以知之오 肝主色이니 入腎爲黑이라. 假令肝病을 何以知中風得之오 其色靑이라 其病脇痛하며 其脈弦이라 何以言之오 肝主色이니 自入爲靑이라. 假令脾病을 何以知傷暑得之오 其臭香이라 心爲脾邪면 其病體重 煩心 心痛하며 其脈緩而浮라 心主臭 故로入脾爲香臭라. 假令肺病을 何以知傷暑得之오 其臭腥이라 心爲肺邪면 其病洒淅寒熱而煩心하며 其脈濇而大라 心主臭니 入肺爲腥臭라. 假令腎病을 何以知傷暑得之오 其臭腐라 心爲腎邪면 其病瀉與下重身熱하며 其脈浮而洪이라 心主臭니 入腎爲腐臭也라. 假令肝病을 何以知傷暑得之오 其臭臊라 心爲肝邪면 其病脇下痛 身熱하며 其脈弦而浮라 心主臭니 入肝爲臊臭라. 假令脾病을 何以知飲食勞倦得之오 其味甘이라 其病體重節痛하며 其脈中緩而大라 脾主味니 自入爲甘이라. 假令肺病을 何以知勞倦得之오 其味辛이라 脾爲肺邪면 其病洒淅寒熱體重하며 其脈色而緩이라 脾主味니 入肺爲辛이라. 假令腎病을 何以知飲食勞倦得之오 其味鹹이라 脾爲腎邪면 其病足脛寒而逆體重하며 其脈沈而緩이라 脾主味니 入腎爲鹹이라. 假令肝病을 何以知飲食勞倦得之오 其味酸이라 脾爲肝邪면 其病脇下痛 體重하며 其脈弦而緩이라 脾主味니 入肝爲酸이라. 假令脾病을 何以知傷寒得之오 其聲歌라 肺爲脾邪면 其病體重洒淅寒熱하며 其脈緩而濇이라 肺主聲이니 入脾爲歌라. 假令肺病을 何以知傷寒得之오 其聲哭이라 其病洒淅寒熱하며 其脈濇이라 肺主聲이니 自入爲哭이라. 假令腎病을 何以知傷寒得之오 其聲腎이라 肺爲腎邪면 其病瀉與下重하고 洒淅寒熱하며 其脈沈而濇이라 肺主聲이니 入腎爲呻이라. 假令肝病을 何以知傷寒得之오 其聲呼라 肺爲肝邪면 其病脇痛하고 洒淅寒熱하며 其脈弦而濇이라 肺主聲이니 入肝爲呼라. 假令脾病을 何以知中濕得之오 其液涎이라 腎爲脾邪면 其病體重하고 足脛寒熱逆하며 其脈緩而沈이라 腎主液이니 入脾爲涎也라. 假令肺病을 何以知中濕得之오 其液涕라 腎爲肺邪면 其病寒熱하고 足脛寒而逆하며 其脈濇而沈이라 腎主液이니 入肺爲涕也라. 假令腎病을 何以知中濕得之오 其液唾라 其病瀉與下重하고 足脛寒而逆하며 其脈沈이라 腎主液이니 自入爲唾라. 假令肝病을 何以知中濕得之오 其液泣이라 腎爲肝邪면 其液痛하고 足脛寒而逆하며 其脈弦而沈이라 腎主液이니 入肝爲泣이라. 凡此五主之法을 察其所主而調之니 所以知虛實 邪正之理也라.

4) 經釋

① 正經은 本經也오 五邪는 爲五臟之邪互相賊也니 上下文이라. 思慮出於心 故로 過用卽受傷이라. 肺臟本寒이라 故外受風寒하고 內飲冷水卽傷肺也라. 肝在志爲怒라 怒恚卽本氣鬱而上衝 故로受傷也라. 脾爲倉廩之官이오 主納飲食이라 四肢는 皆屬於脾하니 勞倦必由四肢라 故過用卽脾受傷也라. 濕傷於下 故로濕先歸腎이라 又腎爲作強之官이오 水又腎之類라 故強力入水卽腎受傷이라.

② 凡外感之邪 先傷榮衛 故身皆熱 又心屬火하고 熱爲火邪之象也니 下同이라.

③ 自入心傷暑也라 焦는 火之氣라 心屬火也라 素金匱眞言論에 心氣焦矣라. 浮大는 心之本脈이오 散은 卽浮大而空虛無神이니 心之病脈也라.

④ 虛卽脾氣不能化穀이오 實卽尙能化穀이라 故有能食不能食之分이니 皆風寒暑濕은 其氣不殊라 故無虛實之辨이라. 若飲食勞倦病因各殊라 故越人著此二語義最精細라.

⑤ 心傷寒也라 按素컨데 心在聲爲笑라 靈九針篇에 卽云 肝主語는 與此區別이라.

① ② (按)上二段은 分自病五邪니 甚無別白이라 飲食勞倦 傷寒中濕三項은 卽上段語니 卽自病卽五邪오 五邪卽自病也라 豈不混沓이리오 蓋上段은 卽靈邪氣藏府病形篇과 及素本病論原文에 止易數字라 但靈素並不分自病與五邪라 故心肝二藏은 卽以憂愁怒恚言하고 餘卽皆以六淫之邪言하여 各舉所重이니 此又一義也라 若欲分別 卽內經自有妙義可尋이니 素陰陽應象大論云 怒傷肝 喜傷心 思傷脾 憂傷肺 恐傷腎이라하니 此眞本經自病之證이오 若外感卽靈九針篇云 肝惡風 心惡熱 肺惡寒 腎惡燥 脾惡濕이라하니 此言外邪所傷之證이라 豈不鑿鑿可據 乃旣欲分別 而只仍一端 不特義例不明이라 亦且詞語不順이니 作書者豈當日未之思耳리오 抑求而不得其義也라.

③ (按)此以一經爲主病 而以各證驗其所從來니 其義與十難診脈法同이오 以一經爲例 而餘卽準此推廣이니 使其無所不貫이라 不特五臟互受五邪를 鑿然可曉이라 凡百病現證을 皆當類測이니 此眞兩經之所未發이라 此義一開而診脈辨證之法이 至靜至密하니 眞足以繼先聖而開來學也라.

5) 正義

① 正經은 本經也오 五邪는 五臟之邪也라 心主思慮니 若憂勞過用 卽傷其心이라 肺主皮毛니 形寒者는 皮毛外受風寒也오 飲冷者는 內飲冷水也니 其臟本寒이라 過卽傷肺也라. 肝主怒恚니 怒卽木氣鬱而傷肝也라. 脾主四肢니 勞倦太過 卽傷脾오 脾運五穀하니 飲食不潔卽亦傷也라. 腎主骨이니 用力作强하고 坐濕入水 卽傷腎하니 蓋腎屬水니 同氣傷感也라 然憂思患怒와 飲食動作은 人之不能無者니 惟不可太過오 過卽傷人必矣라.

② 肝爲風木 故風로 先入肝이라 心爲君火오 暑는 火之邪 故로 心受之라 飲食勞倦과 一味太過면 卽脾傷致病矣라 寒侵皮毛卽傷肺라 雨霧蒸濕之氣卽傷腎이라. 此五者는 邪由外至니 所爲外傷者也라. 按素問本病論, 靈樞邪氣藏府病形篇과 與此는 大同小異라 若素問陰陽應象大論에曰 怒傷肝 喜傷心 思傷脾 憂傷肺 恐傷腎이라하니 乃內傷七情 本臟自病之證也오 宣明五氣論에曰 肝惡風 心惡熱 肺惡寒 腎惡燥 脾惡濕이라하니 此六淫之邪 外感之證也오 皆似同而異라 或謂越人旣言本經

自病은 是從內而生이오 如形寒飲冷即傷肺의 形寒은 是寒感於皮毛니 此從外來也 오 飲冷은 是冷入胸腹이니 亦從外來也니 飲食等亦然이라 況五邪亦有飲食勞倦하 니 豈非自相矛盾乎리오 然其意는 爲正經虛 卽不任寒冷之侵伐하고 侵伐卽每易致病이니 正經虛한데 又傷於飲食者는 爲內傷이오 若傷飲食而致病者는 卽外感也라. 素問에 言腎惡濕者는 言其水藏而惡燥氣之耗竭也오 此云水濕傷腎者는 濕傷於下라 故濕先歸腎이라 腎屬水臟이니 同氣相求也라 是古聖先賢之義가 雖有異同이나 而辨內傷外感之理卽一이라 讀書貴乎融貫이니 不可執泥라 先儒所謂以意逆志라 是爲得之라하니 信夫인저.

③ 假令心病者는 舉心臟爲例也라 此言心病에 肝邪入而得中風之病이니 蓋風其通於肝也라 肝開竅於目 故主色이라 風邪自入肝經卽色青이니 肝在色爲蒼이오 入心卽色赤은 心在色爲赤也오 入脾卽色黃은 脾在色爲黃也오 入肺卽色白은 肺在色爲白也오 入腎卽色黑은 腎在色爲黑也라 故肝之風邪入心하면 其色當赤也라 其病身熱者는 外感之邪가 先傷榮衛 故身熱이라 而又心屬火오 熱爲火邪之象也라 脇下滿痛者는 脇下는 肝之位也라 其脈浮大而弦者는 浮大는 心脈本象이오 肝邪犯之 故現弦脈也라.

④ 假令心病而傷暑할새 暑之傷人에 心先得之는 蓋心主暑也니 此正經自病이니 不涉他經이라 然心屬火오 暑熱之邪傷之면 火邪化物하여 五臭出焉이라 暑邪自入本經하면 其臭焦는 火之氣也오 入脾其臭香은 土之氣也오 入肝其臭臊는 木之氣也오 入腎其臭腐는 水之氣也오 入肺其臭腥은 金之氣也니 故心受暑邪면 發惡臭也라 其病身熱而煩者는 火鬱卽昏亂也오 心痛者는 邪在心卽痛也오 其脈浮大而散者는 浮大는 心之本脈이오 散卽浮大而空虛無神이니 心之病脈也라 本臟自病이오 心主臭 故專以臭推也라.

⑤ 假令心病而傷飲食勞倦者는 心主熱이오 脾主勞倦이라 今心病而飲食勞倦得之 故知脾邪入心也라 喜苦味者는 脾主味오 心屬火하고 火味苦니 從其性也라 虛卽脾氣不能化穀하고 實卽能化穀 故有能食不能之分也라 若肝受飲食勞倦之病하면 其味酸이오 心受病이면 其味苦오 肺受病하면 其味辛이오 腎受病이면 其味鹹이니 脾自受病하면 其味甘이라 其病身熱者는 心也오 體重은 脾也오 其脈浮大者는 心之本脈也오 緩은 脾之脈象也라 此節에 飲食勞倦을 獨有虛實之分者는 蓋卽明正經虛한데 又傷於飲食而爲病이라 較傷飲食而致病者 有間也라.

⑥ 假令心病而傷寒者는 乃肺邪入心也니 肺主聲 故謔言妄語也라 若寒邪入肝卽呼는 肝在聲爲呼也오 入心卽多言은 言爲心聲이며 又在聲爲笑也오 入脾卽歌는 脾在聲爲歌也오 入腎卽呻은 在聲爲呻也오 自入肺之本臟卽哭은 肺在聲爲哭也라 其病身熱惡寒者는 心火臟 故身熱이오 肺本寒臟 故惡寒也라 甚卽喘咳者는 肺主咳요 肺氣上逆 卽喘咳也오 其脈浮大는 心脈也오 濡은 肺之脈象也라.

⑦ 假令心病而中濕者는 心主暑오 腎主濕이니 今心病而傷濕得之 故로知腎入心也라 腎化五液이니 腎爲心邪 故로汗出不可止也오 濕邪入肝爲泣은 肝主泣也오 入肺爲涕는 肺主涕也오 自入腎之本臟卽爲唾는 腎主唾也라 其病身熱者는 心也오 小腹痛者는 腎之位也오 足脛寒而逆者는 足脛腎經所過之病 故로畏寒而逆冷이오 濕性亦近寒也라 其脈沈濡而大者는 沈은腎脈之象이오 濡는濕氣之候오 大는卽心脈之象也라 心脈浮大어늘 獨不言浮者는 沈卽不能浮也라

⑧ 夫法者는 舉一爲例之法也라 五邪者는 五臟得五行之邪也라 欲知五邪之證한데 必審肝病見于色 心病見于臭 脾病見于味 肺病見于聲 腎病見于液이라 其脈은 以本臟之脈爲主 而兼受邪之脈也라 此는 以心一經爲主病而以各證驗其所從來니 其義與十難診脈法同이라 明乎此면 不特五臟互受五邪는 鑿然可曉라 卽百病見證에도 莫不皆可類測 而爲診脈辨證之法程也라

6) 闡註

① 此言內傷七情이 大異於外感五邪之病이라 故首擣之하야 以明治法之不得混也라.

② 此言外感五邪之病也라 然五者之病은 亦因前節五經自病之傷 故邪得湊之而舉發也라 五邪者는 木火土金水之邪也니 肝屬木하니 木生風而中風이오 心屬火하니 火旺夏而傷暑오 脾胃屬土하니 勞倦傷脾 飲食傷胃오 肺屬金하니 肺主皮毛而傷寒이오 腎屬水하니 水就下而中濕이니 下文卽發明肝中風과 心傷暑와 脾傷飲食勞倦과 肺傷寒과 腎中濕之病이라.

7) 縣解

① 久坐濕地 則濕土賊水라 強力汗出入水하면 水入汗孔化濕하니 亦能賊水라 故皆傷腎이라.

8) 校注

① ② 按語 :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에 對해 歷代醫家の 理解는 一致하지 않는데 重要한 세가지 意見은 다음과 같다.

첫째, 正經自病은 內傷에 屬하고 五邪所傷은 外感에 屬한다는 것으로 呂廣이 正經自病에 對해 「此皆從其藏內自發病이오 不從外來也라.」한 것과 五邪所傷에 對해 「此五病從外來也라.」한 것과 같다. 滑壽 또한 「此本經自病者는 病由內作이오 比外邪之干이니 所謂內傷者也라. 此五(邪)者 邪由外至니 所謂外傷者也라.」하였다. 按컨데 原文과 對照해 볼때 이는 다 符合되지 않는다. 正經自病中の 「形寒飲冷」, 「久坐濕地」와 같은 것은 모두 外邪에 屬하고 「飲食勞倦」은 兩者 모두에 있으니 어떻게 嚴格하게 內傷 外感을 區分하겠는가.

둘째, 「正經自病」은 本臟自傷과 關係있고 「五邪所傷」은 五臟의 邪氣가 相互 賊傷한다는 것으로 徐大椿이 「正經은 本經也라 五邪는 五臟之邪互傷賊也라.」고 한 것과 같다. 按컨데 「五臟之邪」는 곧 「中風爲肝邪」, 「傷暑爲心邪」等이고 「肝邪入心」은 五臟邪가 서로 賊이 되는 것이니 이 設은 原文의 뜻과 合한다.

셋째, 原文에 잘못이 있다는 認識으로 張山雷가 「此必傳寫以來니 幾經訛誤라 或者妄人又有竄改니 決非周秦舊本이라.」고 한 것과 같다. 原文과 「正經自病」을 詳細히 對照해보면 치우쳐 記錄된 것이 明確하다. 이 主張은 病因이 같지않고, 그 損傷입는 臟도 各異하며, 五臟이 各自 病을 받으므로 「正經自病」이라 했다고 說明한다. 「五邪所傷」에 있어서는 情況이 多少 複雜해지므로 特別히 心病을 例를 들어 具體적으로 說明했는데 原文內容을 들어 다음과 같이 表를 만들었다.

③ - ⑦ 圖表중의 「五邪所傷」에는 다음과 같은 特點이 있다. 一. 五邪의 分別은 五臟과 相通하니 中風은 「肝邪」, 「傷寒」은 肺邪 等과 같은 것이다. 二. 五臟之邪를 分屬시켜 本臟 或 他臟에 侵入함을 不問하고 均等하게 「五邪所傷」이라 하였다. 本臟을 侵入했을 때는 「自入」이라 했으니 「暑」는 心邪이며 心病이 傷暑로 因한 것을 「心邪自入」이라 한 것과 같다. 「中風」은 肝邪이며 心病이 中風으로 因한 것을 「肝邪入心」이라 하며, 「傷寒」은 肺邪이며 心病이 傷寒으로 因한 것을 肺邪入心이라 하니 나머지도 이와 같이 類推하면 된다. 三. 心이 五邪를 받아 損傷을 當해서 나타내는 症候에는 두가지 特點이 있다. 첫째는 모두 發熱의 症狀이 있는데 이는 五邪所傷은 주로 外感 發熱類의 疾病이란 것을 說明하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病候는 病邪가 通過하는 臟腑 經絡과 有關한데 中風이 肝邪가 되면 그 病은 脇下滿痛하고 脈弦等 肝臟 肝經의 症候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傷寒이 肺邪가 되면 그 病은 灑灑惡寒하고 甚하면 喘咳등 肺臟 肺經의 症候를 보인다. 기타 傷暑가 心邪가 되고 飲食勞倦이 脾邪가 되고 中濕이 腎邪가 되어 心에 入하면 그 症候는 또한 心 脾 腎과 有關하게 分別된다.

⑧ 本難에 提示된 色 臭 味 聲 液 등의 異常 變化와 內臟病情이 有關하다는 理論은 여러 方面에서 臨床辨證을 할때 이 方面의 症候表現과 診斷시 一定한 指導 意義가 있다는 데 對해서도 注意해야 한다. 但只 各人の 體質이 같지 않고 邪氣를 받는 條件도 각기 다르므로 同一한 外邪에 傷하여도 情況은 亦是 種種 같지 않다. 邪를 받아 發病한 後 다시 複雜多變하므로 결코 「當惡焦臭」, 「當喜苦味」라고 斷言할수 없다. 무릇 이는 주로 五行學說을 根據로 나온 말이므로 學者들은 拘執해서는 안된다.

正經自病		五邪	五臟 所主	五 邪 所 傷					五邪入心	
				入肝	入脾	入肺	入腎		其 病	其脈
恚怒氣逆 上而不下	傷肝	中風 ;肝邪	主色	自人 青	黃	白	黑	赤	身熱 脇下滿痛	浮大 而弦
憂愁思慮	傷心	傷暑 ;心邪	主臭	臊	香	腥	腐	自入 焦	身熱而煩	浮大 而散
飲食勞倦	傷脾	飲食 勞倦 ;脾邪	主味	酸	自入 甘	辛	鹹	苦	身熱 體重嗜臥 四肢不收	浮大 而緩
形寒飲冷	傷肺	傷寒 ;肺邪	主聲	呼	歌	自入 哭	呻	言	身熱 灑灑惡寒 甚即喘甚	浮大 而濇
久坐濕地 強力入水	傷腎	中濕 ;腎邪	主液	泣	涎	涕	自入 唾	汗	身熱.腹痛 汗出不止 足脛寒而 逆	沉濡 而大

9) 譯釋

① ② 本難은 五臟 疾病중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의 鑑別을 提示한다. “正經自病”은 病邪가 直接 그 相通하는 臟을 傷하는 것이니 風이 肝을 濕이 脾를 傷케하는 것이다. 或은 臟이 本來의 機能 活動을 過度히 하여 損傷을 입어 病變을 發生하는 것이니 다른 臟에 屬한 病邪의 影響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臟의 疾病이 傳變된 것도 아니다. “五邪所傷”은 五種의 病邪가 五臟중 어떤 臟을 損傷하는 同時에 그 該當 臟에도 同時에 病變이 發生하는 것을 指稱한다. 그러므로 正經自病의 “飲食勞倦即傷脾”와 五邪所傷中の 心病이 飲食勞倦으로 因하여 傷한 것은 區別되어야 한다.

③-⑦ 本難 內容은 心病을 例를 들고 나머지는 가이 類推할수 있다. 肝主色 心主臭 脾主味 肺主聲 腎主液의 理論에 대해서는 四十難을 參照하라. 色 味 臭 聲 液과 五臟의 關係는 《內經》중 類似한 經文이 있는데 《五臟生成篇》에서는 “色味當五臟에 白當肺辛이오 赤當心苦오 青當肝酸이오 黃當脾甘이오 黑當腎鹹이라.” 하였고, 《金匱眞言論》에서는 “肝其臭臊오 心其臭焦오 脾其臭香이오 肺其臭腥이오 腎其臭腐라.” 하였고, 《陰陽應象大論》에서는 “肝在聲爲呼하고 心在聲爲笑하

고 脾在聲爲歌하고 肺在聲爲哭하고 腎在聲爲呻이라."하였고, 《宣明五氣篇》에서는 "五臟化液에 心爲汗이오 肺爲涕오 肝爲淚오 脾爲涎이오 腎爲唾니 是爲五液이라."하였으니 그 中 主聲方面에서 "入心爲言" "在聲爲笑" 의 같지 않은 것 外에 다른것은 內容이 같다. 心病이 어떤 病邪로 말미암았던지 그 共同 特徵은 身熱 脈大이다. 但 病因에 따라 각 特徵과 兼證이 區別된다. 病因의 性質과 그것이 內臟에 影響을 끼쳐 發病하여 생기는 症狀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 風邪는 肝을 쉽게 損傷하고 肝病은 脇下滿痛等の 症狀을 나타내고 飮食勞倦은 脾를 쉽게 損傷하고 脾病은 體重 嗜臥 四肢不收等證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心病 症狀 外에 上記의 症狀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本難의 基本精神이다.

10) 難經

本難은 病因學의 角度에서 疾病의 形成을 把握하고 五臟原發과 五邪 傷害 兩種을 나누었다. 또한 心病을 例를 들어 五邪 傷害로 因한 疾病의 病理과 症狀 脈象을 說明하였다.

11) 今釋

⑧ 本篇에서는 正經自病에 대해서는 그 脈症을 詳細히 說明하지 않았는데 五邪所傷의 診斷을 좇아 正經自病의 特點을 알 수 있다. 五邪所傷에는 모두 身熱의 症狀이 있는데 正經自病에는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內經에서 「凡熱病者 皆傷寒之類也」라 하였는데 이 句節에서 熱病은 모두 傷寒이라는 傷寒은 廣義의 外感을 指稱하고 熱病은 多數가 外感이란 뜻으로 內傷時는 비록 發熱이 있으나 比較的 少數이고 外感에서는 多數가 發熱이 있는고로 五邪所傷에는 모두 發熱이 있고 正經自病에는 身熱이 없다. 또 脈症을 言及해보면 五邪所傷의 脈은 本臟脈象外에 五邪의 脈이 兼하여 있는데 上述한 바와 같이 생각해보면 正經自病의 境遇는, 心經自病은 浮大脈 肺經自病은 濇脈 肝經自病은 弦脈 脾經自病은 緩脈 腎經自病은 沈細脈과 같이 本臟自病의 脈象만 나타날 것이다. 이는 五邪所傷에서 他臟의 脈과 함께 나타나는 것과 다르니 必須的으로 明確히 分別해야 한다.

12) 發揮

① 五臟自病의 定義는 세 方面에서 내릴수 있다. (가) 本臟(經)自生病으로 他臟과는 無關한 것. (나) 內에서 생긴 病으로 後世에서 內傷病이라고 하는 것. (다) 內傷病으로 虛症에 屬한 것.

五臟 正經自病의 病因과 症狀은 다음과 같다. 「憂愁思慮即傷心」: 心神이 傷하면 精神이 鬱結하고 抑鬱不樂하고 煩燥不寐한다. 「形寒飮冷即傷肺」: 肺主皮毛하니 얇게 입어서 肺를 傷하면 寒熱咳嗽하고 鼻塞하고 飮冷하면 肺陽을 傷하여 胸中에 痰飲이 停積하여 咳喘 等症이 나타난다. 「恚怒氣逆 上而不下即傷肝

」: 肝氣鬱結하면 脇下脹滿하고 肝火上沖하면 頭痛 頭眩 目眩하며 面赤脈弦한다. 甚하면 昏厥하고 厥하면 暴死하고 肝風熾動하면 痙攣이 있고 甚하면 昏仆한다. 肝氣橫逆하면 暴吐暴泄하고 擾血하면 吐衄血崩 等證이 나타난다. 「飲食勞倦傷脾」: 運化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營養不良하고 肌肉削瘦, 勞倦怠惰, 四肢無力, 不欲食 等證이 나타난다. 「久坐濕地 強力入水即傷腎」: 強力하게 무슨 일을 한 후 땀을 많이 흘리고 濕地에 오래 앉아 있으면 排泄機能이 損傷을 입는데 水濕이 下焦에 滯留되면 水腫, 癱閉, 腰痛 等證이 나타난다.

② 五邪는 五臟이 外部로 부터 받아 疾病이 되는 原因을 五種으로 나눈 것이니 中風 傷暑 飲食勞倦 傷寒 中濕의 五邪이다. 中風은 肝의 正邪이고 傷暑는 心の 正邪이고 飲食勞倦은 脾의 正邪이고 傷寒은 肺의 正邪이고 中濕은 腎의 正邪이니 칭하여 五臟正邪라 한다. 五邪는 각기 本臟을 잘 傷하는데 그외에 四臟도 傷케하니 稱하여 五邪互傷이라 하고 그 症狀는 다음 項에 나온다.

③ 五邪所傷의 定義는 세 方面에서 내릴수 있다. (가) 本臟(經)自生病이 아니고 五邪로 因해 各 有關한 臟이 傷하거나 다른 臟도 傷하는 것. (正邪互傷) (나) 病이 외로 부터 들어온 것이니 後世에서 外感病이라 稱하는 것. (다) 外感病으로 實證에 屬하는 것.

五邪正邪는 中風은 主로 肝을 傷하고, 傷暑는 主로 心を 傷하고, 飲食勞倦은 主로 脾를 傷하고, 傷寒은 主로 肺를 傷하고, 中濕은 主로 腎을 傷하는 것을 이른다.

本難의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에 飲食勞倦이 重複되는데 前者는 脾臟의 消化吸收 機能이 먼저 衰弱한 然後에 飲食의 影響을 받는 것이니 病因은 內傷이고 正經自病이며, 後者는 脾臟의 運化機能은 正常인데 暴食不潔하거나 飢飽勞逸로 損傷을 입은 것으로 病이 外로 부터 온 것이니 五邪所傷에 屬한다. 兩者에 나타나는 症狀는 吞酸噎腐 腹痛腹脹 嘔吐下痢 等證이 나타나는데 虛實이 있으니 治法에 差異가 있다. 臨症時 分別을 잘해야 한다.

13) 古義

① ② 按컨데 此難所發은 卽出素問遺篇本病論이로대 但彼闕肺一病이라 靈樞第四篇이 有類此者나 而文稍異焉이라 滑註引之는 由不視遺篇이라 所謂正經自病者는 言五臟內虛 而病從內生이니 東垣所謂內傷이 是也라 蓋心肝二病은 固爲七情偏氣之所傷而其肺脾腎之病은 乃似內傷挾外感者나 然既爲正經自病은 卽知非尋常外邪矣라 夫憂愁屬肺하고 思慮屬脾니 共爲手足太陰二臟이나 偏傾而傷心이라 怒傷肝은 此其本情이니 無論已라 形寒飲冷은 雖從外而入이나 然其人自失節 而所受者는 非天時之寒傷之라 且其寒與冷은 亦非一朝一夕之感也라 久坐濕地者는 是亦似外邪나 實非天時之濕이라 居處失宜하고 下體不溫한데 加之強力入房하고 汗出入

水等事면 以漸發病이니 亦非一時之水濕也라 飲食勞倦은 有內外之辨이니 故在下文 五邪病에 亦復言之라 滑註引謝氏說爲是하여 正經之飲食傷主오 勞倦은 五邪之勞倦이니 傷飲食爲之主라 仍詳東垣內外傷辨하니 宜參考라.

14) 研究

① 正經自病 ; 日常生活的 精神的 不節制와 寒 飲食 勞動 濕氣 등이 身體에 좋지 않은 影響을 주는 것이 繼續되면 五臟正經에 疾病을 發生시키기에 이른다. 이는 內傷疾病이니 正經自病이라 한다.

本難의 正經自病에 對한 內容과 <靈樞> 「邪氣臟腑病形論」의 內容이 비슷하다. 「黃帝曰 邪之中人藏奈何오 岐伯曰 憂愁恐懼即傷心하고 形寒寒飲即傷肺한데 以其兩寒相感하면 中外皆傷 故氣逆而上行이라 有所墮墜하고 惡血留內한데 有所大怒하면 氣上而不下 積於脇下即傷肝이라 有所擊朴하고 若醉入房하고 汗出當風即傷脾라 有所用力舉重하고 若入房過度하고 汗出浴水即傷腎이라.」難經에서는 이 篇의 要點을 取한것으로 보인다. 또 醫方大成論과 針灸重寶記 等書의 內容을 보면 「內因七情得之한데(內傷) 喜 怒 憂 思 悲 恐 驚是也라 喜即傷心 其氣散하고 怒即傷肝 其氣繫하고 憂即傷肺 其氣聚하고 思即傷脾 其氣結하고 悲即傷心包 其氣急하고 恐即傷腎 其氣亂하니 雖七證自殊나 然其因即無異라.」하였는데 이 內容들은 大體的으로 素問 舉痛論(怒即氣上 喜即氣緩 悲即氣消 恐即氣下 寒即氣收 炅即氣泄 驚即氣亂 勞即氣耗 思即氣結)과 類似하나 여기서는 七情을 五臟과 連結지어 七情이 病因이 된다고 한것이 다른점이다.

難經과 「邪氣臟腑病形論」을 볼때 難經에는 精神上的의 原因以外에 飲食 勞役 等의 不節制가 더해진 것이 「邪氣臟腑病形論」과는 다른 점이다.

② 五邪

(가) 中風(木) : 五行에 依據해볼 때 風은 東方木性의 邪氣로 輕症은 感冒神經痛이고 中證은 運動 知覺神經麻痺이고 重證은 腦卒中等이다. 素問 風論에 詳細히 論述되어 있다. 이러한 病症은 風으로 因해 생기고 肝을 損傷시키기 쉽다.

(나) 傷暑(火) : 南方火性의 邪氣로 暑氣로 因해 疾病이 생긴다. 暑氣가 사람의 元氣를 損傷하여 身體懶倦 元氣疲勞 欲睡 身熱 頭痛 手足厥冷 泄瀉 眩暈 等證을 誘發한다. 俗說의 中暑 霍亂도 傷暑의 症狀이다.

(다) 飲食勞倦(土) : 中央土性의 邪氣로 飲食과 過勞邪가 있다.

(라) 傷寒(金) : 西方金性의 邪氣로 寒冷氣의 損傷을 받아, 輕하면 感冒의 程度이고 重하면 不省人事 四肢強直 拘急 疼痛 等證을 誘發한다.

(마) 中濕(水) : 北方水性의 邪氣로 霜霧雨露(天濕) 下水泥土(地濕) 酒食 飲食等의 濕이 體表 肌肉筋肉 中焦 等を 侵犯하여 關節疼痛 日晡發熱 大便漏泄 小便澀 腹部脹滿 等證을 일으킨다.

難經에서는 上述한 病因이 일으키는 症候를 始終 抽象的인 方式으로 說明하는데 다음과 같다. 中風이 藏을 侵犯하면 症候는 그 藏이 主管하는 色으로 表現되고, 傷暑는 그 藏이 主管하는 臭氣로 表現되며, 飲食勞倦은 그 藏이 主管하는 味로 表現되고, 傷寒은 그 藏이 主管하는 聲으로 表現되고, 中濕은 그 藏이 主管하는 液으로 表現된다. 五邪로 因한 五臟의 病狀과 抽象的인 五臟所主의 因子를 相互配合하여 그 形式을 만드는 것이 難經의 特徵이다.

五邪의 病	五臟所主의 證
中風以色表現 脇下痛 脈弦	心病爲身熱 脈浮大
傷暑以臭表現 煩心 心痛 脈洪	肝病爲脇下滿痛 脈弦
飲食勞倦以味表現 身重 脈緩	脾病爲體重 脈緩
傷寒以聲表現 洒淅寒熱 脈濡	肺病爲洒淅寒熱 脈濡
中濕以液表現 足脛寒逆 脈沈	腎病爲小腹痛 足脛寒逆 脈沈

以上 五例의 五臟과 五邪의 因子를 相互配合하면 難經의 病因別 五臟症狀이 構成되니 診斷時에 症狀을 보면 五邪중 어떤 邪氣가 어떤 藏을 損傷시켜 發顯되었나를 알 수 있다.

③ 心病(例)

「惡臭」에 關해 難經評林은 心이 主管하는 臭氣는 焦라 하여 焦臭라 하였다. 一般的으로는 五臭를 싫어한다는 것으로 解釋하는데 原文의 「惡臭」는 評林의 說이 맞는 것 같다. 어떤 臭氣를 싫어한다는 것은 病人 嗜好上의 좋고 싫음이지만 診斷하는 立場에서는 病人의 臭氣를 말할 수 있는데 그 五臭에 따라 病位를 決定한다. 「虛爲不食 實爲欲食」二句는 上下文에 없다. 錯簡衍文으로 보여진다. 「讒言妄語」는 意識障礙때 나타난다. 讒言은 病中亂語이고 妄語는 虛僞荒誕의 말을 가리킨다. 一般的으로 五行은 風(木) 熱(火) 濕(土) 燥(金) 寒(水)으로 說明하는데 難經에서는 濕을 水性의 邪氣로 보아 腎邪라 하였고 寒을 金性의 邪氣로 보아 肺邪라 했는데 이는 難經 特有的 醫學體系이다. 이런 體系가 무엇을 根據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難經을 공부하고 臨床知識으로 活用하여 直接 體得해야 할 것이다. 腎主濕은 三十四難에 腎主液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濕」은 「液」의 誤字고, 「液」은 廣義의 體內 水濕을 가리킨다. 總括하건데 五種分泌物을 意味하는데는 變함이 없다.

【考察】

本難은 病因學的 角度에서 疾病의 形成을 把握하여 正經自病과 五邪所傷 兩種을 나누었다. 또한 心病을 例를 들어 五邪所傷으로 因한 疾病의 病理와 症狀 脈象을 說明하였다⁹⁾.

그런 過程에서 提起된 問題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正經自病과 五邪와 五邪所傷이다. 이들은 內經의 여러 篇에 그 起源을 두고 있으며 難經 特有의 學說도 포함하고 있다. 위에 든 引用書들의 內容을 參考하면서 各 原文에 對한 起源과 意味, 本書의 特異點들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의 概念

① 正經自病

(가) 起源 : 滑·徐·葉·本 等은 正經自病의 內容이 《靈樞·邪氣臟腑病形論》의 「黃帝曰 …… 邪之中人藏奈何오 岐伯曰 憂愁恐懼卽傷心하고 形寒寒飲卽傷肺한데 以其兩寒相感하면 中外皆傷 故氣逆而上行이라 有所墮墜하고 惡血留內한데 有所大怒하면 氣上而不下 積於脇下卽傷肝이라 有所擊朴하고 若醉入房하고 汗出當風卽傷脾라 有所用力舉重하고 若入房過度하고 汗出浴水卽傷腎이라.」한 內容과 類似하나 傷脾一節만이 若醉入房 汗出當風 卽傷脾라 한 것이 다른 점이고, 傷脾에 對해 難經에서는 精神上的 原因 以外에 飲食 勞役等의 不節制를 더했다고 했다. 또 徐와 葉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怒傷肝하고 喜傷心하고 思傷脾하고 憂傷肺하고 恐傷腎이라」한 內傷七情의 內容을 正經自病과 關係있다고 했고, 本은 《素問·舉痛論》의 「怒卽氣上하며 喜卽氣緩하며 悲卽氣消하며 恐卽氣下하며 寒卽氣收하며 飢卽氣泄하며 驚卽氣亂하며 勞卽氣耗하며 思卽氣結이라」한 것과 類似하나 여기서는 七情을 五臟과 連結지어 七情이 病因이 된다고 한 것이 다르다고 했고, 醫方大成論과 針灸重寶記 等書의 內容도 引用하면서 類似하다 하였으나 《邪氣臟腑病形論》의 內容보다는 相異한 面이 많다. 徐와 葉 等은 《素問·本病論》도 그 起源으로 들고 있지만 流失된 것으로 確認할 수는 없다. 따라서 正經自病의 起源은 《素問·邪氣臟腑病形論》에 있다고 할 수있겠다.

(나) 概念

첫째, 五臟 原發性的 疾病으로 他臟과는 無關하며, 傳變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註釋家들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徐는 「正經은 本經也」라 했고, 凌은 正經自病은 本臟自傷과 關係있다 하였고, 《譯釋》에서는 “正經自病”은 다른 臟에 屬한 病邪의 影響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臟의 疾病이 傳變된 것도 아니라고 했으며, 黃은 本臟(經)自生病으로 他臟과는 無關한 것이라 했다.

9) 王洪圖 難經 p.72

둘째, 日常生活의 精神的 不節制와 寒, 飮食勞動, 濕氣 등이 身體에 좋지 않은 影響을 주는 것이 繼續되어 五臟正經에 發生된 疾病을 意味하는데¹⁰⁾, 滑이 「憂思恚怒와 飮食動作之過가 而致然也라. 憂思恚怒와 飮食動作은 人之所不能無者니 發而中節이면 烏能爲害리오 過卽傷人必矣라 故로善養生者는 去泰去甚하고 適其中而已라. 昧者拘言이니 乃欲一切拒絕之니 豈理也哉也라.」한 것과 《譯釋》에서 「臟이 本來의 機能 活動을 過度히 하여 損傷을 입어 病變을 發生하는 것이 라」한 것을 參照할 수 있다.

셋째, 五臟의 虛弱으로 因해 病이 內에서 생긴다는 것으로 虞¹¹⁾가 「正經虛卽 腠理開하고 腠理開卽外感於內 故曰正經自病也라.」한 것과, 滕이 「所謂正經自病者 言五臟內虛 而病從內生 東垣所謂內傷是也라」한 것과, 謝의 「此本經自病者는 病有內作이오 非外邪之間이니 所爲內傷者也라.」한 것, 呂의 「此皆從其臧 內自發病이니 不從外來也라.」한 것을 參照할 수 있다.

《譯釋》에서는 “正經自病”은 病邪가 直接 그 相通하는 臟을 傷하는 것이니 風이 肝을 濕이 脾를 傷케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黃이 말한 바 五臟正邪에 該當하는 것으로 正經自病의 意味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思料된다.

위에서 본 바를 綜合해 보면, 正經自病은 사람이 精神的 肉體의으로 無節制한 日常生活을 할 때나 虛弱한 基本體力을 가진 狀態에서, 本經에만 影響을 미칠 수 있고 他臟에는 影響力을 行使할 수 없을 程度의 弱한 病因에 依해 自生한 病으로 內傷 및 虛證에 屬하는 疾病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心과 肝은 憂愁思慮와 恚怒 등의 精神的인 影響은 많이 받으나 外部의 攻擊으로 부터는 強한 臟으로, 脾와 肺와 腎은 飮食勞倦이나 形寒飮冷이나 久坐濕地 및 強力入水 등에 依해 肉體의인 影響을 많이 받으나 精神活動은 많이 하지않는 臟으로 認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本經이란 憂愁思慮 …… 強力入水 등과 가장 關係 깊은 臟을 意味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3項 五邪에서 말한 것이 外感正邪라면 本項에서 말하는 바는 內傷正邪라 할수도 있을 것이다.

② 五邪所傷

五邪所傷의 概念은 正經自病과 相對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本臟 自生病이 아닌, 他臟 傳變病을 意味한다. 徐의 「五邪爲五臟之邪 互相賊也」와, 凌이 「五臟의 邪氣가 相互賊傷한다」는 것과, 王의 「他臟의 病邪가 本臟으로 傳變하여 이루어진 것」과, 張의 「他邪所傷」과, 黃의 「本臟

10)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p.295

11) 虞庶 宋 治平間 陵陽人 難經註를 著. 王九思가 難經集注를 編할 때 虞庶의 著書를 引用했음.

(經)自生病이 아니고 五邪로 因해 各 有關한 臟이 傷하거나 다른 臟도 傷하는 것. (正邪互傷)」을 參照할 수 있다. 《譯釋》에서 五種의 病邪가 五臟 中 어떤 臟을 損傷하는 同時에 그 該當 臟에도 同時에 病變이 發生하는 것을 指稱한다는 主張은 原文 中에 自入이란 말이 있으므로 不適合하다고 보인다.

둘째, 正氣가 實한 狀態에서도 損傷받을 수 있고 邪氣의 強度도 強하므로 實證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黃의 「外感病으로 實證에 屬하는 것」을 參照할 수 있다. 이는 原文 中에는 明示되어 있지 않지만, 四十八難의 外感은 實證에 屬한다는 內容과, 正經自病의 境遇가 虛證이므로 相對的으로 보고 提示한 것으로 思料된다.

셋째, 一般的으로 外感病을 意味한다는 것으로 滑의 「邪由外至니 所謂外傷者也라.」와, 丁錦의 「外感五邪之病也라」를 參照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를 綜合해보면, 五邪所傷은 正氣가 實한 狀態에서도 發病이 되는 境遇인데, 그로 因해 그 相通하는 臟腑 및 他臟에까지도 傳變될 수 있는 強한 邪氣이므로 實證을 나타내기 쉬우며, 精神的 影響보다는 外部 邪氣에 의한 疾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代에 있어서는 精神的 衝擊도 外部의 感染原 못지않게 健康한 사람의 人體를 損傷하며, 그로 因해 他臟을 損傷하여 合併症도 많이 誘發시키므로 五邪所傷을 外感으로만 局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③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에서 重複되는 內容들

(가) 飲食勞倦.

謝氏는 「脾胃正經之病은 得之勞倦이오 五邪之傷은 得之飲食이라.」하였고, 葉은 「正經虛 又傷於飲食者는 爲內傷이라 若傷飲食而致病者는 卽外感也라.」하였고, 黃은 「前者는 脾臟의 消化吸收 機能이 먼저 衰弱한 然後에 飲食의 影響을 받는 것이니 病因은 內傷이고 正經自病이며, 後者는 脾臟의 運化機能은 正常인데 暴食不潔하거나 飢飽勞逸로 損傷을 입은 것으로 病이 外로 부터 온 것이니 五邪所傷에 屬한다. 兩者에 나타나는 症狀은 吞酸噯腐 腹痛腹脹 嘔吐下痢 等證이 나타나는데 虛實이 있으니 治法에 差異가 있다. 臨症時 分別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謝氏의 飲食과 勞倦을 나눈 部分에 대해서는 더 以上의 註釋도 없고 證憑할 만한 理論도 없으므로 妥當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葉과 黃의 解釋과 같이 脾機能이 弱한 狀態에서 飲食勞倦의 刺戟을 받아 疾病의 狀態에 이르는 것은 正經自病이고 脾機能은 正常인데 飲食勞倦의 刺戟이 너무 強하면 五邪所傷가 된다는 說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形寒飲冷과 傷寒.

外形을 寒하게 하는 것과 차가운 食物을 많이 먹는 것 역시 外에서 들어오는 刺戟으로 보면 傷寒과 다름없다는 見解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反駁을 함으로써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을 區分했다.

虞는 「正經虛卽腠理開하고 腠理開卽外感於內 故曰正經自病也라」하고, 葉은 「正經虛 卽不任寒冷之侵伐하고 侵伐卽每易致病이라」했다. 이는 上記의 飲食勞倦의 境遇와 같이 正氣가 弱한 狀態에서의 弱한 傷寒에 의해서는 正經自病이 되고, 強한 傷寒의 刺戟에 의해서는 五邪所傷이 된다고 봐야 하겠다.

(다) 久坐濕地 強力入水와 中濕.

《本義》에 或曰「坐濕入水 亦從外得之也라.」何爲正經自病고? 曰「此非天之六淫也라.」하여 久坐濕地나 強力入水가 역시 外로부터 오는 刺戟인데 正經自病에 該當한다고 한 것에 대한 疑問을 提起하고 그에 對한 答까지 하고 있다. 卽 濕地에 오래 앉아 있는 行爲나 強力入水에는 사람의 意志, 卽 日常의 不節制가 內包되어 있으므로 天의 六淫이 아니고 人의 內部 原因에 依한 것이므로 正經自病에 該當한다고 본 것이다.

2) 正經自病

① 憂愁思慮卽傷心

滑은 「心主思慮오 君主之官也 故로憂愁思慮卽傷心이라」하였고, 丁은 「心主脈이니 憂愁思慮 卽心脈不得宣行 故傷心也라」하였고, 呂는 「心爲神이오 五臟之君이니 聰明才智가 皆由心出이오 憂勞之甚卽傷其心이오 心傷神弱也라」하였고, 虞는 「任治於物淸筌栖靈曰 心今憂愁思慮不息 故傷心也라」하였고, 張은 「心은 藏神養心하니 莫善于寡慾憂愁思慮오 過度卽神疲而心受傷矣라」하였고, 徐는 「思慮出於心 故過用卽受傷이라」했고, 葉은 「心主思慮니 若憂勞過用 卽傷其心이오」라 했고, 《譯釋》에서는 心은 一身의 主宰로 《素問·靈蘭秘傳論》에서 “心者是君主之官也라 神明出焉이라” 하였으니 사람이 憂愁思慮의 情緒的 影響이 太過하면 그 心神을 傷케 한다. 憂愁思慮는 否定的 情緒活動에 屬하고 이는 心神을 損傷하므로 疾患을 誘發한다고 했다. 丁을 除外하고는 心은 君主之官이며 神明이 出한다는 《靈蘭秘傳論》의 內容에 基礎하고 心의 主活動을 思慮에 있다고 보고 憂愁思慮가 心을 損傷한다고 하였고, 丁은 心의 血管系 作用을 考慮하면서 心的인 憂愁思慮의 刺戟이 血液循環障礙를 誘發하고 이것이 또한 心을 損傷케 한다는 心身 相關性을 提示하고 있다. 이는 東洋醫學의 獨特한 面인데, 憂愁思慮등의 精神의 刺戟에 대해 身體的으로 頭痛 心痛 全身痲木 등의 症狀이 나타나고, 刺戟이 持續되면 心悸 怔忡 등의 心血管系 症狀도 생기는 現狀을 說明할 수 있는 것이다.

② 形寒飲冷卽傷肺

滑은 「肺主皮毛而上이니 是爲嫩藏 故로形寒飲冷卽傷肺라」하였고, 丁은 「肺主皮毛니 惡其寒이오 所以形寒飲寒卽令傷其肺也라」하였고, 呂는 「肺主皮毛니 形寒者는 皮毛寒也오 飲冷者는 傷肺也라 肺主受水漿 水漿不可冷飲이라 肺又惡寒

故曰傷也라」하였고, 張은 「肺主氣而宜溫이니 形寒者는 皮毛寒也오 形寒于外而 飲冷于內 卽氣不利而肺受傷矣라」하였고, 徐는 「肺臟本寒 故外受風寒內飲冷水卽 傷肺也라」하였고, 葉은 「肺主皮毛니 形寒者는 皮毛外受風寒也오 飲冷者는 內飲 冷水也니 其臟本寒이니 過卽傷肺也라」하였고, 《譯釋》에서는 肺는 太陰의 臟으 로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찬 것은 싫어하므로 外로 風寒에 傷하거나 內로 生冷 에 傷하면 損傷을 입는데 《素問咳論》에 「皮毛者는 肺之合也오 皮毛先受邪氣하 면 邪氣以從其合也라 其寒飲食入胃하면 從肺脈上至於肺卽肺寒이오 肺寒卽外內合 이니 邪因而客之 卽爲肺咳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가 形寒과 飲冷의 刺戟이 各各 肺의 主管하는 바인 皮毛와 肺에 入하여 傷肺한다는데에 意見이 一致하고 있다. 但 飲冷의 結果가 肺나 胃에 影響을 주어 肺를 寒하게 할 뿐아니라 肺의 連繫器官으로 思料되는 扁桃腺이나 喉 頭에도 直接的으로 影響을 주어 傷肺의 現狀이 더 두드러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③ 恚怒氣逆上而不下卽傷肝

滑은 「肝主怒하니 怒卽傷肝이라」하였고, 丁은 「肝主謀慮하고 膽主勇斷 故怒 極卽傷其肝也라」하였고, 呂는 「肝與膽爲藏府오 其氣勇 故主怒오 怒卽傷也라」 하였고, 虞는 「素問云 怒卽血鬱하여 積於上焦하면 名曰 逆厥이라 又曰 怒卽嘔血 은 氣逆使然 故傷也라」하였고, 張은 「肝主怒오 恚恨怒也니 恚怒卽氣逆而上血不 順行하여 壅積心胃而爲歸養肝이오 甚卽嘔血而肝受傷矣라」하였고, 徐는 「肝在志 爲怒하니 怒恚卽本氣鬱而上衝 故受傷也라」하였고, 葉은 「肝主怒恚오 怒卽木氣 鬱而傷肝也라」하였고, 《譯釋》에서는 肝主謀慮하고 그 性質은 舒暢條達하기를 좋아하는데 志에 있어서는 怒이니 恚怒가 太過하면 肝氣抑鬱하고 舒暢하지 못하 니 肝을 傷하게 되는데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 「若有所大怒하여 氣上而不 下하면 積於脇下卽傷肝이라.」하였다. 이는 사람이 恚怒後에 脇痛 脇脹等證이 생 기는 것을 說明하는 것으로 氣逆으로 肝을 傷한 症候라고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肝은 怒氣 謀慮의 精神的인 活動과 關係 깊고 舒暢調達 하는 機能이 있으므로 恚怒氣의 逆上이 傷肝의 原因이 된다는 것에 意見이 一致 하고 있다. 但 張은 氣逆而上하면 血이 不順行하여 嘔血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는 肝藏血의 生理까지 導入하여 說明한 것으로 傷肝의 精神的인 面 뿐아니라 器 質的인 面까지도 생각한 것으로 이 또한 韓醫學의 心身醫學의 面을 드러낸 것 으로 보인다. 實際에 있어서는 肝硬變 等 肝의 器質的인 損傷이 먼저 있어 靜脈 血이 肝으로 流入될 수 없는 境遇에 食道靜脈 等の 鬱血이 생기고 그 後에 精神 的인 衝擊을 받았을 때 嘔血의 現狀을 나타내는데, 張이 이러한 境遇를 보고 註 釋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機轉의 說明은 매우 妥當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前項에서 整理한 正經自病의 概念과는 거리가 있는 病症이므로 이들의 相關 性에 대한 研究는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飲食勞倦卽傷脾

滑은 「脾主飲食及四肢 故로飲食勞倦卽傷脾라」하였고, 丁은 「脾主味니 飲食味美而過食之하고 無道勞動하면 其力倦局其足 故傷脾也라」하였고, 呂는 「飲食飽하면 胃氣滿하고 脾絡恆急하여 或走馬跳躍하고 或以房勞하여 脈絡裂 故傷脾也라」하였고, 虞는 「脾爲倉廩之官이오 五味出焉은 謂納其五味하여 化生五氣하여 以養人身한데 今飲食勞倦而致自傷이라 是故聖人謹和五味하고 骨正筋柔하여 謹道如法하면 長有天命하니 安致自傷이리오 養生之道는 可不戒哉라」하였고, 張은 「脾受穀味而主四肢니 善養脾者는 調其飲食하고 弗勞其形하니 或苟飲食不節하고 起居無常하면 脾受傷矣라」하였고, 徐는 「脾爲倉廩之官이오 主納飲食이오 四肢皆屬於脾한데 勞倦必由四肢 故過用卽脾受傷也라」하였고, 葉은 「脾主四肢니 勞倦太過卽傷脾오 脾運五穀하니 飲食不潔卽亦傷也라」하였고, 《譯釋》에서는 脾主運化니 飲食失節하면 脾를 傷한다. 또한 脾가 肌肉과 四肢를 主하므로 勞力過度하고 肢體困倦하면 脾를 傷케된다고 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脾가 飲食을 받아들여 五氣로 化하는 機能을 가졌고, 氣運을 四肢에 運化하므로 飲食勞倦이 傷脾의 原因이 되는 것으로 註釋家들의 意見은 一致한다. 五邪所傷에도 飲食勞倦이 重複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言及했는데 이렇게 重複되는 것을 볼 때, 難經의 著者는 脾의 消化機能만을 크게 評價한 것같고, 精神的인 刺戟으로 오는 消化不良과 같은 心因性 脾機能 障礙는 心이나 肝에서 傳變되어 오는 것으로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心이나 肝이 精神的 刺戟에 依해 損傷받는 것은 傳變이 되지 않는 正經自病의 境遇이므로 心이나 肝의 精神的 損傷이 脾의 心因性 損傷의 原因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難經 著作 當時에 現代와 같은 心因性 脾機能 障礙가 없지 않았다면 正經自病 및 五邪所傷의 概念이 다시 定立되어야 할 不完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久坐濕地 強力入水卽傷腎

滑은 「腎主骨而屬水 故로用力作强하고 坐濕入水卽傷腎이라」하였고, 丁은 「腎主腰오 腰者腎之府라 久坐卽腎氣不得宣行 故損也라. 腎穴在足心底오 名曰涌泉인데 居處濕地入水 故有損也라 強力者는 務快其心 强合陰陽 故傷其腎也라」하였고, 呂는 「久坐濕地는 謂遭憂喪이오 強力者는 謂舉重引弩오 入水者는 謂復溺於水 或婦人經水未過 强合陰陽也라」하였고, 虞는 「土主濕은 自然之理也오 今久坐濕地卽外濕內感於腎合之라 風寒發爲臛病 强力過用 必致自飲也라 經脈別論曰 持重遠行이면 必傷於腎이라 生氣通天論曰 因而強力하면 腎氣乃傷하고 高骨乃塊라 經脈別論曰 度水跌仆하면 喘出於腎與胃也라」하였고, 張은 「腎惡濕이니 內經曰 濕勝寒季면 夏腎衰라하니 濕能勝腎可知라. 腰乃腎之府니 坐濕卽濕易入이오 强

力者는 力不勝能而強勝之也니 強力卽汗出이오 汗出卽玄府不固한데 入于水中하면 水從玄府而入이니 濕勝卽腎傷矣라 此五者는 是正經自生病也라」하였고, 徐는 「濕傷於下 故濕先歸腎이오 又腎爲作強之官이오 水又腎之類 故強力入水卽腎受傷이라」하였고, 葉은 「腎主骨이니 用力作強하고 坐濕入水卽傷腎은 蓋腎屬水니 同氣傷感也라 然憂思恚怒와 飲食動作은 人之不能無者하나니 惟不可太過오 過卽傷人必矣라」하였고, 黃元御는 「久坐濕地 則濕土賊水니 強力汗出入水하면 水入汗孔 化濕하니 亦能賊水 故皆傷腎이라」譯釋에서는 《素問·靈蘭秘傳論》에 이르기를 「腎者作強之官이오 技巧出焉이라」하였는데 過度히 힘을 쓰고 다시 入水하거나 濕地에 오래 앉아있으면 腎을 傷케 된다고 했다.

上記의 註釋들을 볼 때 傷腎에 있어서는 久坐와 濕地와 強力과 入水가 各各 原因이 될 수 있고 久坐濕地와 強力入水로 합하여져 原因이 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腎主骨하고 腰가 腎의 府이므로 久坐하면 腎氣가 不能行하므로 傷腎한다 는 것은 腎虛腰痛을 意味하는 것 같은데 久坐로 因해 腰痛이 생기는 것을 傷腎의 症勢로 보았던 것으로 思料된다. 腎屬水하므로 濕地나 入水가 傷腎한다는 것은 腎의 屬性이 水이므로 水의 過多는 水의 臟을 損傷한다는 意味인데 臨床上 이러한 境遇는 흔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難經의 著者가 五行上의 理論으로 症狀를 說明하려는 데서 온 論理인 것으로 思料된다. 腎은 作強之官이므로 強力하게 힘을 쓰면 傷腎케 된다는 것은 日常의 生活에서의 作業으로 因한 神經系나 筋關節系의 損傷보다는 強力入房으로 因한 性機能 障礙를 表現한 內容으로 思料된다. 腎經의 起始穴인 湧泉穴이 足心底에 있으므로 濕地에 오래 앉아 있으면 傷腎하게 된다는 것은 久坐濕地가 傷腎의 原因이 되는 機轉을 說明한 것이지만 機轉이나 病의 原因 모두가 타당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經絡의 起始穴로 機轉을 說明한 것은 이 境遇 뿐이고 다른 境遇에는 없을 뿐 아니라 實際적으로도 이들의 相關性은 密接하지 않기 때문이다. 強力히 힘을 쓰고 汗出한 狀態에서는 玄府가 不固하게 되는데 이때 入水하면 濕이 盛하여 傷腎하게 된다는 것은 強力入水가 傷腎하는 機轉을 說明한 것인데 이 역시 妥當하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實際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強力入水의 結果로는 傷腎보다는 傷肺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 強力入水에 대해 呂는 婦人 經水不止에 強合陰陽하는 것으로도 解釋했는데 이는 難經 著者의 本意를 바르게 解釋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經水不止에 強合陰陽하면 腎의 機能을 損傷한다는 것 自體는 妥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原著者와 註釋家들의 傷腎의 原因에 대한 見解는 모두 合當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一部만 妥當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⑥ 正經自病의 一般的인 症狀

本篇에서는 正經自病에 대해서는 그 脈症을 詳細히 說明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黃은 五邪所傷의 境遇를 좇아 正經自病의 特點을 알 수있다 했는데 內容은 各家注을 參考하면 된다.

3) 五邪

① 起源 : 葉이 「宣明五氣論曰 肝惡風이오 心惡熱이오 肺惡寒이오 腎惡燥오 脾惡濕이라하니 此六淫之邪의 外感之證也니 皆似同而異라」한 것을 除外하고는 特別히 起源이 될 만한 論述을 한 引用書는 없다.

但 本難의 獨特한 面에 대하여 本은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五行은 風(木) 熱(火) 濕(土) 燥(金) 寒(水)으로 說明하는데 難經에서는 濕을 水性의 邪氣로 보아 腎邪라 하였고 寒을 金性의 邪氣로 보아 肺邪라 했는데 이는 難經 特有的 醫學體系인데 이런 體系가 무엇을 根據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難經을 공부하고 臨床知識으로 活用하여 直接 體得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集注>의 虞注에서는 「土主濕은 自然之理也오 今久坐濕地即外濕內感於腎合之라」하였고, 葉은 「腎惡濕者는 言其水藏而惡燥氣之耗竭也니 此云水濕傷腎者는 濕傷於下 故濕先歸腎이라 腎屬水臟이니 同氣求也라 是古聖先賢之義가 雖有異同이라 而辨內傷外感之理即一이라 讀書貴乎融貫이니 不可執泥라 先儒所爲以義逆志라 是爲得之라하니 信夫라.」하여 濕이 腎의 邪氣가 되는 이유를 說明하면서, 土主濕은 自然之理를 이르는 것이고 여기서의 久坐濕地는 外濕이 內로 腎과 合하여 傷腎케 한다하여 一般的인 五行上의 說明과 相互 矛盾되지 않음을 說明했다.

② 五邪

五臟이 外部로 부터 받아 疾病이 되는 原因을 五種으로 나눈것이니 中風 傷暑 飮食勞倦 傷寒 中濕의 五邪 또는 五臟正邪라 한다.¹²⁾ 五者의 病을 말한 것은 前節에서도 五經의 自病을 말했기 때문이다¹³⁾.

(가) 中風(木)

丁은 「中은 傷也」라 하였고, 滑은 「風은 木也오 喜傷肝이라」하였고, 呂는 「肝主風也라」하였고, 虞는 「東方生風하고 風生木惡風하고 又巽木爲風이라」하였고, 丁錦은 「肝屬木 木生風而中風이라」하였고, 黃은 「中風은 肝의 正邪」라고 하였고, 本은 五行에 依據해볼 때 風은 東方木性의 邪氣로 輕症은 感冒 神經痛이고 中證은 運動 知覺神經麻痺이고 重證은 腦卒中等이다. 素問 風論에 詳細히 論述되어 있는데 이러한 病症은 風으로 因해 생기고 肝을 損傷시키기 쉽다고 했다.

12) 黃維三 上揭書 p.173

13) 丁錦 古本難經闡註 p.4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中風은 風의 損傷입는다는 뜻이고 風은 肝과 相通하므로 肝의 正邪라 했다. 中風時의 症狀에 대해 本이 말한 바는 肝의 邪氣가 肺로 轉移된다는지, 肝主筋의 生理로 解釋한다든지, 腦卒中의 症狀이 風의 特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說明 가능한 症狀들이다. 中風의 一般的인 症勢는 다음 五邪所傷의 項에서 提示된다.

(나) 傷暑(火)

滑은 「暑는 火오 喜傷心이라」하였고, 呂는 「心主暑也라」하였고, 虞는 「心火主暑니 王於夏暑熱也라 素問曰 夏傷於暑하면 秋必痲瘡이라」하였고, 丁錦은 「心屬火 火旺夏而傷暑라」하였고, 黃은 「傷暑는 心の 正邪」라 하였고, 本은 南方火性の 邪氣로 暑氣로 因해 疾病이 생긴다. 暑氣가 사람의 元氣를 損傷하여 身體懶倦 元氣疲勞 欲睡 身熱 頭痛 手足厥冷 泄瀉 眩暈 等證을 誘發하는데 俗說의 中暑 霍亂도 傷暑의 症狀이라고 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傷暑는 暑의 損傷을 입는다는 뜻으로 暑는 心과 相通하니 心の 正邪라 했다. 傷暑時의 症狀에 대해 本이 말한 바는 暑의 邪氣가 他臟에 入해서 生길 수 있는 症勢 特히 消化器 系統에 미치는 影響을 많이 考慮해서 提示한 것으로 보인다. 傷暑의 一般的인 脈症은 다음 五邪所傷의 項에서 提示된다.

(다) 飲食勞倦(土)

滑은 「土爰稼穡 脾主四肢 故로 飲食勞倦이 喜傷脾라」하였고, 呂는 「脾主勞倦也라」하였고, 丁錦은 「脾胃屬土 勞倦傷脾 飲食傷胃라」하였고, 黃은 「飲食勞倦은 脾의 正邪」라 하면서 吞酸噯腐 腹痛腹脹 嘔吐下痢 等證이 나타난다 하였다.

飲食勞倦은 飲食勞倦으로 因한 損傷을 意味하며 飲食勞倦은 脾와 相通하니 脾의 正邪라 했다. 이로 因한 症狀에 대해서는 黃이 消化器 系統의 症狀을 提示했고 다음 項에서도 나오므로 이에 대신하기로 한다.

(라) 傷寒(金)

滑은 「寒은 金氣也오 喜傷肺니 左氏傳狐突云金寒是也라」하였고, 呂는 「肺主寒也라」하였고, 虞는 「寒感皮毛 故曰傷寒也라」하였고, 丁錦은 「肺屬金 肺主皮毛而傷寒이라」하였고, 黃은 「傷寒은 肺의 正邪」라 하였고, 本은 西方金性の 邪氣로 寒冷氣의 損傷을 받아, 輕하면 感冒의 程度이고 重하면 不省人事 四肢強直 拘急 疼痛 等證을 誘發한다고 했다.

傷寒은 寒의 損傷을 입는다는 意味로 寒이 肺와 相通하니 肺의 正邪라 했고, 傷寒의 症狀이 提示되었는데 一般的인 傷寒과 症狀의 形態가 硬直되는 것을 傷寒의 症狀으로 본 것 같다. 다음 項의 五邪所傷도 參照할 수 있다.

(마) 中濕(水)

滑은 「濕은 水也오 喜傷腎이니 霧雨蒸氣之類也라」하였고, 呂는 「腎主濕也라」하였고, 虞는 「水流濕之義也라」하였고, 丁錦은 「腎屬水 水就下而中濕」이라하였고, 黃은 「中濕은 腎의 正邪」라 하였고, 本은 北方水性의 邪氣로 霜霧雨露(天濕) 下水泥土(地濕) 酒食飲食等の 濕이 體表 肌肉筋肉 中焦 等を 侵犯하여 關節疼痛 日晡發熱 大便漏泄 小便澁 腹部脹滿 等證을 일으킨다고 했다.

中濕이란 中風의 境遇와 같이 濕의 損傷을 받는다는 意味로 濕은 水와 같은 類로 腎을 쉽게 損傷하므로 腎의 正邪라 했고, 本은 水濕의 種類를 天의 濕인 霜霧雨露와 地의 濕인 下水泥土와 人의 濕인 酒食飲食으로 나누고 이들이 各各 體表 肌肉筋肉 中焦 等を 侵犯하여 關節疼痛 日晡發熱 大便漏泄 小便澁 腹部脹滿 等證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런 症狀들은 濕의 一般의인 症狀들로 보여지나 日晡發熱의 境遇는 그 機轉이 明確하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다음 項의 五邪所傷에서의 症狀과도 類似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研究가 더 필요할 것을 보인다.

4) 五邪所傷

原文에서는 五邪所傷의 境遇에 나타나는 病理 및 症狀 脈象을 心病을 例로 들어 說明하고 있다.

病理의 一種이라 볼수있는 肝主色 心主臭 脾主味 肺主聲 腎主液의 理論에 대해서는 四十難을 參照할 수있고, 色 味 臭 聲 液과 五臟의 關係는 <內經>중 類似한 經文이 있는데 <五臟生成篇>에서는 “色味當五臟에 白當肺辛이오 赤當心苦오 青當肝酸이오 黃當脾甘이오 黑當腎鹹이라.” 하였고, <金匱眞言論>에서는 “肝其臭臊오 心其臭焦오 脾其臭香이오 肺其臭腥이오 腎其臭腐라.” 하였고, <陰陽應象大論>에서는 “肝在聲爲呼하고 心在聲爲笑하고 脾在聲爲歌하고 肺在聲爲哭하고 腎在聲爲呻이라.” 하였고, <宣明五氣篇>에서는 “五臟化液에 心爲汗이오 肺爲涕오 肝爲淚오 脾爲涎이오 腎爲唾니 是爲五液이라.” 하였으니 그 中 主聲方面에서 “入心爲言”과 “在聲爲笑”의 같지 않은 것 外에 다른 것은 內容이 같다¹⁴⁾.

그리고 心이 五邪를 받아 損傷을 당해서 나타내는 症候에는 두가지 特點이 있다. 첫째는 모두 發熱의 症狀이 있는데 이는 五邪所傷은 主로 外感 發熱類의 疾病이란 것을 說明하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病候는 病邪가 通過하는 臟腑 經絡과 有關한데 中風이 肝邪가 되면 그 病은 脇下滿痛하고 脈弦等 肝臟 肝經의 症候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傷寒이 肺邪가 되면 그 病은 灑灑惡寒하고 甚하면 喘咳등 肺臟 肺經의 症候를 보인다. 기타 傷暑가 心邪가 되고 飲食勞倦이 脾邪가 되고 中濕이 腎邪가 되어 心에 入하면 그 症候는 또한 心 脾 腎과 有關하게 分別된다.¹⁵⁾

14) 南京中醫學院 難經譯釋 pp. 173 175.

脈象에 있어서는 心의 脈象인 浮大脈이 基本的으로 나타나며 邪氣의 性質과 通하는 臟器의 脈象이 隋伴된다. 但 腎邪의 境遇에 있어서는 腎脈이 沈하므로 浮脈은 나타나지 않고 大脈만 나타난다.

① 心病이 中風으로 왔을 때

(가) 面色赤 : 肝主色하므로 肝邪인 中風이 心病의 原因이 되면 面色赤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註釋家들의 解釋은 거의 一致한다. 丁은 「言中風者는 謂肝應風主色이니 邪散於五臟이면 爲之五色也라」 하였고, 葉은 「蓋風其通於肝也라 肝開竅於目 故主色이오 風邪自入肝經即色靑이니 肝在色爲蒼이오 入心即色赤은 心在色爲赤也오 入脾即色黃은 脾在色爲黃也오 入肺即色白은 肺在色爲白也오 入腎即色黑은 腎在色爲黑也니 故肝之風邪入心하면 其色當赤也라」 하였다.

(나) 身熱 : 葉은 「其病身熱者는 外感之邪가 先傷榮衛 故身熱이라 而又心屬火오 熱爲火邪之象也라」 했는데 이는 外感和 心病時에 나타날 수 있는 症勢가 身熱이란 症勢이므로 心病이 어떠한 外邪에 의해 發生되더라도 나타나는 共同的 症狀이다. 이 症狀은 以下 모두에서 나타나므로 以下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다) 脇下滿痛 : 葉은 「脇下肝之爲也라」 하여 脇下滿痛은 中風이 肝을 損傷시킴으로 惹起되는 症狀임을 밝혔다.

(라) 脈浮大而弦 : 葉은 「浮大心脈本象이오 肝邪犯之 故現弦脈也라」 하여 脈浮大而弦은 心和 肝의 損傷으로 오는 脈象임을 밝혔다.

② 心病이 傷暑로 왔을 때

(가) 惡焦臭 : 心主臭하므로 心邪인 傷暑가 心病의 原因이 되면 焦臭를 싫어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註釋家들의 意見은 一致한다. 丁은 「傷暑者는 謂心應暑主臭라 邪散於五臟이면 爲之五臭也라」 하였고, 葉은 「心屬火오 暑熱之邪傷之면 火邪化物하여 五臭出焉이라 暑邪自入本經하면 其臭焦는 火之氣也오 入脾其臭香은 土之氣也오 入肝其臭臊는 木之氣也오 入腎其臭腐는 水之氣也오 入肺其臭腥은 金之氣也니 故心受暑邪면 發惡臭也오 …… 本臟自病이오 心主臭 故專以臭推也라」 하였다.

(나) 身熱而煩 : 葉은 「其病身熱而煩者는 火鬱即脊亂也라」 하여 身熱而煩이 心經에 火의 鬱結로 因해 나타나는 症狀임을 밝혔다.

(다) 心痛 : 葉은 「心痛者는 邪在心即痛也라」 하여 心의 損傷時에 心部位의 痛症이 있음을 밝혔다.

(라) 脈浮大而散 : 葉은 「其脈浮大而散者는 浮大心之本脈이오 散即浮大而空虛無神이니 心之病脈也라」 하여 心病時에 나타나는 脈象을 說明하고 있다.

③ 心病이 飲食勞倦으로 왔을 때.

(가) 喜苦味 : 脾主味하므로 飲食勞倦의 脾邪가 心病의 原因이 되면 心の味인 苦味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註釋家들의 意見은 一致한다. 丁은 「脾應濕主味하니 邪散入五臟爲五味라」하였고, 葉은 「脾主味오 心屬火니 火味苦 증기性也라 虛卽脾氣不能化穀하고 實卽能化穀 故有能食不能之分也라 若肝受 飲食勞倦之病하면 其味酸이오 心受病이면 其味苦오 肺受病하면 其味辛이오 腎受病이면 其味鹹이니 脾自受病하면 其味甘이라」하였다.

(나) 虛爲不飲食 實爲飲食 : 葉은 「飲食勞倦이 獨有虛實之分者는 蓋卽明正經虛 又傷於飲食而爲病이라 較傷飲食而致病者가 有間也라」하여 傷脾의 虛實에 따른 差異點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의 差異點인지 五邪所傷內에서의 虛實 分類인지는 明確하지 않다.

(다) 體重 嗜臥 四肢不收 : 滑은 「體重 嗜臥 四肢不收는 脾也라」하여 脾主四肢하므로 脾의 邪氣가 侵入했을 때에 傷脾의 症狀이 나타남을 밝혔다.

(라) 脈浮大而緩 : 葉은 「其脈浮大者는 心之本脈也오 緩脾之脈象也라」하여 心과 脾의 病脈象이 同時에 나타남을 밝혔다.

④ 心病이 傷寒으로 왔을 때

(가) 譫言 妄語 : 肺主聲하므로 傷寒의 肺邪가 心病의 原因이 되면 心の聲인 言中에서 病的인 譫言 妄語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註釋家들의 意見은 거의 一致한다. 丁은 「肺主燥而其令清切하고 惡寒主其聲이라 邪散入五臟爲之五聲也라」하였고, 虞는 「五金擊之면 有聲故五音出於肺也라. 木之畏金 故呼라 啓玄子云 呼亦當嘯라 此云言은 素問云笑니 謂金火相當夫婦相見 故言笑라. 土母金子라 母子相見 故有歌義라. 金母水子라 子之見母니 發嬌呻聲也라. 肺主於秋오 秋者愁也오 其音商이오 商傷也라 故自入爲哭也라」하였고, 葉은 「肺主聲 故譫言妄語也라 若寒邪入肝卽呼는 肝在聲爲呼也오 入心卽多言은 言爲心聲이오 又在聲爲笑也오 入脾卽歌는 脾在聲爲歌也오 入腎卽呻은 在聲爲呻也오 自入肺之本臟卽哭은 肺在聲爲哭也라」하였다.

(나) 洒洒惡寒 甚卽喘咳 : 葉이 「肺本寒臟 故惡寒也라 甚卽喘咳者는 肺主咳오 肺氣上逆 卽喘咳也라」하여 洒洒惡寒 甚卽喘咳는 傷寒의 邪氣가 肺를 損傷시킴으로 惹起되는 症狀임을 밝혔다.

(다) 脈浮大而濇 : 葉이 「其脈浮大는 心脈也오 濇肺之脈象也라」하여 心과 肺의 病脈이 同時에 나타남을 밝혔다.

⑤ 心病이 中濕으로 왔을 때

(가) 喜汗出不可止 : 腎主濕하므로 腎邪인 中濕이 心病의 原因이 되면 心の

液인 汗이 出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註釋家들의 意見은 거의 一致한다. 丁은 「腎應寒主水하니 邪散入五臟爲之五液也라」하였고, 葉은 「腎主濕이니 今心病而傷濕得之 故知腎入心也라 腎化五液이니 腎爲心邪 故汗出不可止也오 濕邪入肝爲泣은 肝主泣也오 入肺爲涕는 肺主涕也오 自入腎之本臟卽爲唾는 腎主唾也라」하였다.

(나) 小腹痛 足脛寒而逆 ; 葉이 「小腹痛者는 腎之位也오 足脛寒而逆者는 足脛腎經所過之病 故畏寒而逆冷이오 濕性亦近寒也라」하여 小腹痛 足脛寒而逆의 症狀이 中濕이 腎經을 損傷시킴으로 오는 것임을 밝혔다.

(다) 脈沈濡而大 ; 葉이 「其脈沈濡而大者는 沈腎脈之象이오 濡濕氣之候오 大卽心脈之象也라 心脈浮大인데 獨不言浮者는 沈卽不能浮也라」하여 心과 腎의 病脈이 同時에 나타남을 밝혔다.

⑥ 五邪所傷 症狀表現의 一般的인 法則

心病을 例를 들어 說明한 것 外에 肝病등 다른 病들이 어떤 邪氣에 의해 생기면 그 症勢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論述한 內容은 《圖註》에 나와있다. 그리고 本은 그 모든 症狀에는 一般的인 法則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整理했는데 內容은 各家注을 參考할 수 있다. 그러나 臨床에 있어 이와 같은 傳變이나 症狀의 法則을 規則的으로 適用하기는 多少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思料되며 다만 이에 立脚한 診斷을 하도록 努力하고 세심히 觀察하는 習慣을 길러야 하겠다.

IV. 結 論

本難은 病因學的 角度에서 疾病의 形成을 把握하여 正經自病과 五邪所傷 兩種을 나누었다. 또한 心病을 例를 들어 五邪所傷으로 因한 疾病의 病理와 症狀 脈象을 說明하였다. 그런 過程에서 提起된 問題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正經自病과 五邪와 五邪所傷이다. 이들은 內經의 여러 篇에 그 起源을 두고 있으며 難經 特有的 學說도 포함하고 있다.

1. 正經自病은 그 起源을 《素問·邪氣臟腑病形論》에 둔다고 할 수 있고, 그 內容은 憂愁思慮는 心을 傷하고 形寒飮冷은 肺를 傷하고 恚怒氣가 逆上하여 不下하면 肝을 傷하고 飮食勞倦은 脾를 傷하고 久坐濕地와 強力入水는 腎을 傷한다는 것으로, 사람이 精神的 肉體的으로 無節制한 日常生活을 할 때나 虛弱한 基本體力을 가진 狀態에서, 本經에만 影響을 미칠 수있고 他臟에는 影響力을 行使할 수 없을 程度의 弱한 病因에 依해 自生한 病으로 內傷 및 虛證에 屬하는

疾病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心과 肝은 憂愁思慮와 恚怒 等の 精神的인 影響은 많이 받으나 外部의 攻擊으로 부터는 強한 臟으로, 脾와 肺와 腎은 飲食勞倦이나 形寒飲冷이나 久坐濕地 및 強力入水 等 肉體的인 影響을 많이 받으나 精神活動은 많이 하지 않는 臟으로 認識했음을 알 수 있다.

五邪所傷은 正氣가 實한 狀態에서도 發病이 되는 境遇인데, 그로 因해 그 相通하는 臟腑 및 他臟에까지도 傳變될 수 있는 強한 邪氣이므로 實證을 나타내기 쉬우며, 精神的 影響보다는 外部 邪氣에 의한 疾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代에 있어서는 精神的 衝擊도 外部의 感染原 못지않게 健康한 사람의 人體를 損傷하며, 그로 因해 他臟을 損傷하여 合併症도 많이 誘發시키므로 五邪所傷을 外感으로만 局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五邪는 中風과 傷暑와 飲食勞倦과 傷寒과 中濕인데, 五邪所傷은 正氣가 實한 狀態에서도 發病이 되는 境遇로 그로 因해 그 相通하는 臟腑 및 他臟에까지도 傳變될 수 있는 強한 邪氣이므로 實證을 나타내기 쉬우며, 精神的 影響보다는 外部 邪氣에 의한 疾病으로 볼 수 있다.

3. 飲食勞倦의 境遇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이 重複되는데 먼저 正氣가 虛弱한 狀態에서 飲食勞倦의 傷害를 받느냐, 正氣는 健實한 狀態에서 飲食勞倦의 過度한 刺戟을 받느냐는 差異로 區分할 수 있다. 形寒飲冷과 傷寒, 久坐濕地 強力入水와 中濕의 關係도 이와 같은데 다만 이들의 境遇는 人의 不注意로 因한 것이나 天의 六淫으로 因한 것이냐는 差異도 包含되어 있다.

4. 五邪所傷의 症狀은 心病을 例로 들어 提示하고 있는데 五邪의 種類에 따른 症狀과 心病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五邪所傷의 症狀 表現은 中風이 藏을 侵犯하면 症候는 그 藏이 主管하는 色으로 表現되고, 傷暑는 그 藏이 主管하는 臭氣로 表現되며, 飲食勞倦은 그 藏이 主管하는 味로 表現되고, 傷寒은 그 藏이 主管하는 聲으로 表現되고, 中濕은 그 藏이 主管하는 液으로 表現된다. 그리고 外感病으로써 身熱이 共通의으로 있으며, 五邪와 相通하는 臟 部位나 經絡 部位의 痛症과 該當 臟의 所管 症狀이 나타난다. 脈象에 있어서는 五邪가 相通하는 바의 臟 및 轉移된 臟을 代表하는 脈象이 同時에 나타난다.

參 考 文 獻

1.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2. 成樂箕 : 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90.

3. 李文宰：東醫診斷學，서울，慶苑文化社，1981.
4. 河北中醫學院：靈樞經校釋(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5. 滑壽：難經本義，臺北，世一書局，1981.
6. 王九思：難經集注，臺北，臺北中華書局，1984.
7. 張世賢：校訂圖註難經，臺北，大孚書局，1977.
8. 徐靈台：難經經釋·徐靈台醫書全集，臺北，烏州出版社，1969.
9. 葉霖：難經正義，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1.
10. 丁錦：古本難經闡註，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5.
11. 黃元御：難經懸解，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
12. 蔡陸仙：中國醫學匯海·難經，서울，成輔社，1978.
13. 凌輝星：難經校注，中國，一中社，1992.
14. 南京中醫學院：難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79.
15. 南京中醫學院：難經譯釋，中國，昭人出版社.
16. 王洪圖：難經，北京，春秋出版社，1988.
17. 唐湘清：難經今釋，臺北，國立編譯館，1968.
18. 黃維三：難經發揮，臺北，中國醫藥學院，1990.
19. 滕萬卿：難經古義，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5.
20. 加藤宗博：難經衷腋，北京，中醫古籍出版社，1984.
21. 本間祥白：難經之研究，日本，正音出版社，1965.